금주의 법구–〈아함경〉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 말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1월 2일)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코로나 시름, 빛 속 사라지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 조계종 중앙신도회(이사장 · 신도회장 주윤식)가 진행한 '2020 행복바라미 불교전통문화 사진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운주사의 빛'이 선정됐다. 날마다좋은날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12월 1일 신승희 씨의 운주사의 빛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위 측은 "운주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표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프로처럼 '잘' 찍은 사진 뿐 아니라 아마추어 느낌이 있지만 참신하고 공감이 가는 작품들도 선정했으며 일반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제공=날마다좋은날

불교 호감도 1위… 코로나 대응 호감 상승

한국리서치 1000명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5개 종교 중 1위를 기록했다.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과 마음 치유에 대한 행보가 호감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불교를 포함해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교가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한국리서치는 각각의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 매우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 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불교는 평균 50.9점으로 응답자 41%가 51점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주었다. 불교는 49점 이하의 부정적 점수를 준 응답자 비율이 28%에 불과했다.

가톨릭은 평균 50.3점으로 불교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9%가 49점 이하의 부정적인 점수를 줘 부정인식이 약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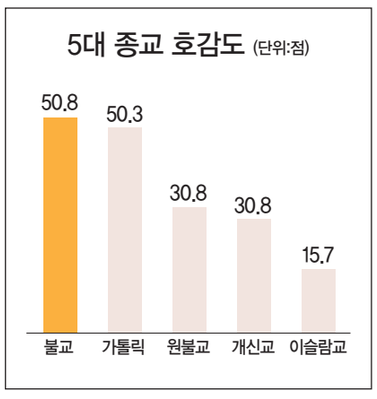
개신교는 호감도 점수가 28.0점으로 원불교의 호감도 점수인 30.8점보다도 2.8점이나 낮았다. 개신교는 과반이 넘는 54% 응답자가 24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도 조사됐는데, 5대 종교 중 최하인 15.7점에 그쳤다.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인이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먼저 가톨릭(75.5점), 불교(71.4점), 개신교(62.3점)는 모두 본인이 믿는 종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차이점은 본인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평가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불교(48.9점)에 가장 높은 호감을 보였다는 점이다.

불교를 바라보는 타종교인들의 호감도는 가톨릭(58.1), 무종교(48.9), 기타종교(46.3), 개신교(33.4) 순이었으며, 기타 종교와 무종교, 가톨릭 신자들은 불교를 본인 종교 외에 호감도 1위로 꼽았다. 개신교의 경우 가톨릭을 1위, 불교를 2위로 꼽았다.



불교, 가장 높은 호감 기록해
무 · 타종교인 호감 특히 높아
의지 · 안정감 제공 도움 여론
"치유 · 긍정인식 확대나서자"

한국리서치 측은 "코로나 이후 각 종교계의 행보에서 종교에 대한 극명한 호감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강화되는 종교 집회 금지 등에 대한 긍정평가도 함께 조사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4월 이후 70%대 긍정평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자들의 불교계 방역조치 및 집회 금지 등에 대한 종교별 긍정평가는 전체 긍정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회 등 종교활동이 제한을 받았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믿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의지할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인간관계(70%), 긍정적 감정(68%), 소속감(66%)으로 응답 순위가 높았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불교에 대한 타종교인, 무종교인들의 호감 상승 추세는 코로나 이후 대응과 마음 치유를 골자로 한 불교계 행보에 대한 긍정인식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며 "국민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긍정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데 불교가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버스토리 조계사 피신 5년 한상균 前위원장 지금은…



"부처님 가피로 제가 존재하죠"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시위를 주도하다 수배령이 내려진 채 조계사로 피신했던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제의 인물이었다.

25일간 이어졌던 그의 조계사 은신은 불교계는 물론,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일대 사건으로 회자된다. 당시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이 조계사를 침탈하면서 조계종 종무원과 불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 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노동자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치고 당당한 걸음으로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호송되던 장면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킨 최고의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로부터 꼭 5년이 지난 12월 10일 그를 만났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감옥에 수감된 채 2년 6개월을 보냈고, 가석방 출소 후 이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이끄는 '권리찾기 유니온' 대표로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신분에서 벗어나 마지막 복직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삭발 후 짧은 머리카락 위로 '투쟁'이 새겨진 붉은 색 머리띠를 두른 채 거친 음성으로 울분을 토하던 모습도 이젠 찾아볼 수 없다. 부드러운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지만, 근로기준법의 차별 없는 적용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노동권을 말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대신 더 깊어지고 묵직해졌다.

조계사 은신 당시 온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알 수 없었던 속사정도 이제는 웃으며 꺼낼 수 있다. 그는 "조계사와 조계종, 불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말했다. 옥중편지로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前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의 아니게 불교계에 심한 민폐가 됐습니다. 특히 부처님을 예경하며 예불을 올리는 공간이 격전지가 된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부처님의 너른 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관련인터뷰 2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당신의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동련은
어린이·청소년 **인성과 희망**을 키웁니다.
지혜·자비 바탕을 키웁니다.
내일 인재 **참 불자**를 키웁니다.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성, 마음행복 프로그램
–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도자를 위한 전문 교육
– 어린이·청소년 활동 지원 및 상담

• **후원계좌**(예금주 : 사단법인 동련)
부산은행 140-01-002189-8 농협 301-0278-6185-41

어린이 • 청소년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증명	정관 혜총
고문	정여 철오 지현
총재	지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부총재	운성 덕진 지광 심산 성행
추진위원장	신공(이사장)
추진부위원장	정무(상임이사)
추진위원	도제 탄경 혜타 지우 능후 효산 명원 현수 혜성
사무총장	미수
지역후원관리	김미경 김상희 김용숙 박영우 신현임 조현주

사업부 최미선 지원부 이현미 홍보부 손무늬 모금부 박소정

사단법인 동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48번길 22 세인빌딩 3층
Tel (051) 864-4569 Fax (051) 864-4665
www.dongryun.net

“가장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 ‘불국토’ 꿈꿔”



5년 만에 만난 한상균 前 위원장은 “ ‘조계사 은신 25일’ 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 몸 의탁했던 25일
5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
경찰 막기 위한 인간띠 감동
“2000만 노동자 품어 줬다”

‘권리찾기 유니온’ 대표로
노동운동 새 역사에 도전
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연대단체 형성

글=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15년 11월 16일,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 숨 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곳곳에 배치된 경찰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다. 5월 노동절 집회 이후 체포영장에 이어 11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라’ 는 외침은 폭력적 진압과 수배령으로 돌아와 그를 옭아매고 있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KT해고노동자였던 양 위원장은 한때 노동계를 이끌었던 오랜 ‘동지’ 이자 도반이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 위원장이 처한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만납시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말도 없었다. 도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짧은 통화였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 주변을 돌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 해가 지고 인적이 뜸해지자, 조계사를 밝히던 조명도 하나둘 꺼지고 경내엔 적막이 깔렸다.

밤 9시경, 한 위원장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조계사 대웅전으로 뛰어 들어갔다. 곧바로 사복경찰 7~8명이 들이닥쳤다. 부처님전에 삼배할 겨를도 없었다.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이미 조계사에 진입한 상황에서 체포는 불가능했다. 곧이어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도착했고, 한상균 위원장은 그를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조계사 측은 숙고 끝에 한상균 위원장을 관음전에 머물도록 했다.

그렇게 ‘조계사 은신 25일’ 의 첫날이 지났다. 조계사 주변에는 1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됐고, 언론사 기자들이 상주하며 경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근 건물에서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기자들이 포진한 덕에, 거처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세상은 난리가 났지만 정작 관음전은 고요했다. 기도를 하고 책을 읽었다. 머릿속이 혼란할 때는 절을 했다.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깊은 고민에도 좀처럼 답은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집요했다.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는 물론, 조계종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졌다. 전국구, 지위 고하를 막론한 조계종 스님들과 무수한 인연 고리를 따라 “한상균을 내보내라”는 정부의 입김이 닿았다. 조계종과 조계사는 “부처님 품에 깃든 중생을 내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상균 위원장과 그를 보호 중인 불교계를 향해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는 공식발언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고 불교계 일각에서도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도 배려해 주신 스님들께 거친 언행도 했었죠. 저로 인한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이후에야 알았죠. 그래서 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경찰들의 감시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양한웅 집행위원장과 민주노총 측 관계자 한명 외에는 관음전을 드나들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12월 9일 급기야 경찰병력이 조계사 경내로 진입했다.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해 12대 중대 1000여명의 경찰병력이 집결해 조계사를 에워쌌고, 이를 막기 위해 조계종 종무원들은 관음전을 중심으로 인간 바리케이트를 쳤다. 밀려들어오는 경찰병력에 일부 종무원이 상해를 입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양한웅 위원장을 매개로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과 비밀리에 수 번의 소통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자진출두를 염두에 둔 입장을 밝혔고 자승 스님은 “끝까지 종단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자승 스님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며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유예했고, 한 위원장은 결연한 의지로 자진출두를 준비했다.

“당시 언론은 ‘폭력시위’ 만 보도하며 민주노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왜 2000만 노동자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대중과 만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였습니다. 2000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조금이나마 가 닿길 바랐지요. 한자 한자 새기듯 입장문을 쓰느라 거의 밤을 샌 것 같습니다.”

약속됐던 12월 10일, 한상균 위원장은 관음전을 나와 대웅전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조계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처님 품을 허락해 준 불교계에 대한 감사였다.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투쟁’ 이 새겨진 머리띠를 매고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한사람의 해고노동자로서 살아온 삶과 98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무력화’ 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악에 대한 우려와 정권의 폭력적 진압에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선생의 이야기까지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당시 현장을 생중계 한 방송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자진출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날의 결단이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가 됐지요. 저는 그대로 체포됐지만,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을 털고 사회에 던진 울림은 결코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위원장은 “그날 관음전에서 나와 대웅전, 생명평화법당, 그리고 일주문까지 서로 손을 잡고 길을 만들어 저를 보호해 주셨던 조계종 관계자 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사실 그렇게까지 해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조계사 은신 25일을 끝으로, 2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이 시작됐다. 한평 남짓 독방은 그에게 최고의 도량이었다. 종일 마주하는 하얀 벽은 끝없는 화두를 던졌다. 어느 날엔 세계 인권운동의 역사를 쓴 철학자들이, 어느 날엔 부처님이 새겨졌다. 사회에서 소외된 채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앞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감옥 안에서 소식을 접한 그는 “경이로웠다”고 회상했다. 국민 개개인의 힘이 모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에서 그는 노동운동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봤다. 조합을 넘어선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사자들이야 말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확신이었다.

2018년 가석방 출소한 그는 최고의 도량에서 그려온 그림을 현실화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 결실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대조직 ‘권리찾기 유니온’ 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마찬가지. 4대 보험 가입조차 되지 않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며 실업급여는 꿈도 꿀 수 없는 노동자들, 계약의 형식과 규모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아 온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가파른 생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었다. 반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그가 ‘권리찾기 유니온’ 을 일컬어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하루에도 수천명씩 가입을 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방증해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점입니다.”

권리찾기 유니온은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다.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개개인의 가입을 통한 펼쳐내는 자유로운 연대의 장이다. 사업주를 향한 투쟁이 아니다. 당사자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모아내 ‘보편적인 권리인 노동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는 메시지로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이다.

사실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부처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중생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일궈내는 과정이 그와 같다. 어찌보면 5년 뒤 다시 만난 그는 불교계를 향해 이 시대 종교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진 셈이다.

“2000만 노동자는 중생의 삶을 대변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우리사회를 불국토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죠.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계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로 2000만 노동자들과 함께한다면 우리 사회가 불국토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5년 전 벼랑 끝에 몰린 채 부처님 품에 깃들었던 그가 이제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생존의 경계에 선 노동자들과 손을 잡았다. 함께 걷는 그 길이 곧 모두가 행복한 세상, 즉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여정일 지도 모를 일이다.



조계종 종무원 등 불자들은 한상균 前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었다.



2015년 12월 10일 조계사를 나와 자진출두하던 당시의 모습.

삼광사 개산전법 51주년

학술대회

21세기 문화융성시대와 불교의 역할

2020. 12. 24 목 – 25 금

삼광사 지관전

대한불교 천태종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공동으로 12월 24~25일 양일간 부산 삼광사 개산전법 5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삼광사와 부산불교 중흥–삼대지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삼광사의 미래 역할과 포교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월 24일(목)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사회
09:30	등록	접수 및 방명록 작성	
10:00	개회식		이필원 (동국대)
10:30	기조발표	주제: 삼광사 개산 50주년과 삼대지표운동 김세운(삼광사주지)	
11:00	제1발표	주 제: 부산불교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삼광사의 역할 발표자: 권기현(위덕대) 논평자: 김명우(동아대)	
12:00	오 찬		
13:00	제2발표	주 제: 부산불교복지에서 삼광사의 역할과 전망 발표자: 도옹스님 논평자: 최연주(동의대)	우명주 (동국대)
13:50	제3발표	주 제: 천태종 종무행정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발표자: 월도스님 논평자: 오지연(동국대)	
14:40	제4발표	주 제: 코로나시대,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 부산불교의 현황을 기반으로– 발표자: 조기룡(동국대) 논평자: 김영미(동국대)	
15:30	Break Time		
16:00	제5발표	주 제: 관음염불의 실천행 고찰 –한국 천태종 삼대지표를 중심으로– 발표자: 보덕스님(동국대) 논평자: 이종수(순천대)	김희 (인제대)
16:50	제6발표	주 제: 삼대지표로 본 가람배치의 구조와 의미 –구인사와 삼광사를 중심으로 – 발표자: 문무왕(동명대) 논평자: 고영섭(동국대)	
17:40	총평		
18:10	기념촬영	참가자 전원	

12월 25일(금)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사회
12:30	등록	접수 및 방명록 작성	
13:00	제7발표	주 제: 삼대지표와 한국 근대불교 개혁론 발표자: 이병욱(고려대) 논평자: 강경구(동의대)	황상준 (동국대)
13:50	제8발표	주제: 수행과 기도중심으로 부산불교를 이끌다 –재가불자 수행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철헌(동국대) 논평자: 조명제(신라대)	
14:40	제9발표	주 제: 대조사 법어에 나타난 천태사상의 새로운 해석 발표자: 광도스님(금강대) 논평자: 임상목(북경대)	
15:30	Break Time		
16:00	제10발표	주 제: 삼대지표와 천태법화사상 발표자: 이기운(동국대) 논평자: 차차석(동방대학원대)	강대현 (위덕대)
16:50	제11발표	주 제: 대조사의 한국불교 개혁론 발표자: 김경집(동국대) 논평자: 제점숙(동서대)	
17:40	총평	총 평: 권기종(동국대 명예교수)	
18:10	폐회식	폐회사: 김세운(삼광사 주지) 사홍서원	

주최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주관 대한불교 천태종 신도회

후원 대한불교 천태종 | 금강신문 | BBS불교방송 | BTN | 법보신문 | 현대불교신문

문의 051)808-7111~5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명상활용 · 불교문화증진 신축년 불교계 '新사업'

12월 2일 국회서 예산 통과
문체부 예산 등 '95+α' 증액
문화재보유사찰 긴급 지원 등
전각 · 성보문화재 보존 활용

명상활용 · 영화제 예산도 편성
운문사문화체험관 건립 추진

국회가 내년 정부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현안으로 꼽혔던 불교 관련 예산도 9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명상 활용 · 산사문화재 활용 · 불교영화제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돼 내년도 불교계가 추진하는 명상 · 문화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긴급지원과 전통사찰보수 정비 등에 대한 지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문화재 다량소장처 문화재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예산에는 56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찰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사찰들에 대한 지원예산이다. 실제 문화재보유사찰들은 문화재 관리 인력을 그대로 고용유지하며 성보를 관리해 왔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계종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 ·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에는 38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책정된 전통사찰 보수 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에 부담할 사찰 자부담 20%인 74억 원을 10%로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불교계의 명상 활용, 문화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돼 관련 사업들이 활기를 보일 전망이다.

종교문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내년도 예산은 653억 원이며, △종교문화활동 195억 원 △전통문화유산보존 272억 원 △종교문화시설 124억 원 등이 세부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불교계 사업 예산들이 다수 새롭게 반영됐다. 동국대 진행하는 명상페스티벌과 조계종이 신청한 명상 활용사업에는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이 편성됐으며,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사)날마다좋은날이 5월에 개최 예정인 불교영화제에는 1억 원이 지원된다.

청도 운문사가 추진하는 '비구니 문화 체험관' 건립 불사에는 설계 비용을 포함해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조계종이 세종시에 건립하는 불교문화체험관에는 11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이 편성됐으며,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에는 기존 6억 원에서 4억이 증액돼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한중일불교도대회와 한일불교교류대회 예산도 내년 종무 예산에 반영됐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보유사찰은 문화재구역관람료를 통해 문화재를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재보유사찰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인해 내년 문화재보유사찰은 단기적으로나마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심점 역할 할 컨트롤 타워 필요

위기의 장애인포교 현주소와 과제

㊤ 장애인포교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포교의 대안과 과제**

기존단체 네트워크 토대로
큰틀에서 공통의 전략 필요
장애 유형별 포교매뉴얼 등
연구 · 실천과제 해결 나서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장애인 포교가 3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진정한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포교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애인포교는 기존 장애불자들의 신행지원을 넘어 젊은 세대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연대를 토대로, 비불자 장애인을 불자로 유입하기 위한 대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장애인불자단체 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기존 장애인불자회 등 관련단체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신도계층에 대한 신행지원과 잠재적인 불자계층을 향한 포교전략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장애불자들의 경우 시각 · 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소속돼 활동한다는 점에서 점자경전이나 영상컨텐츠 제공 등 지원방안이 명확한 반면, 비불자장애인들의 경우 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은 "시각 · 청각 · 지체장애 외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 장애유형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사실 이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다"며 "최소한 각 장애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는 사찰이나 신행방법, 불교컨텐츠 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 매뉴얼로 만들어야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들을 포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장애인불자회 관계자도 "불교에 관심을 가진 장애인이 설사 있더라도, 그들을 불교로 안내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흔히 초보불자들에게 그 지역의 좋은 사찰이나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는 사찰 혹은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하듯이, 지역별로 지체장애인이 참배하기 쉬운 사찰이나 법회의 수화통역 섭외가 가능한 사찰, 점자예불문이 비치된 사찰, 장애인들이 신행상담 및 불교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찰을 소개할 수 있는 매뉴얼은 최소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장애불자들의 신행 형태를 연구 · 조사하고 매뉴얼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유형별 장애특성에 맞는 포교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불교 혹은 종단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 포교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큰 틀에서 역량을 모은다면 개별 단체들이 각기 원력에 따라 활동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님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불자에 대한 에티켓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불교계에서 조금이나마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문화컨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 언택트 문화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게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젊은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만한 양질의 컨텐츠를 전략적으로 제작하거나 발굴해 활용한다면 잠재적인 장애인불자 범위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장애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적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불자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장애인 신행을 지원하는 소임자 스님을 선임하는 방안, 사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별 · 장애 유형별 참배가 용이한 사찰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됐다.

"태고종, 보살계 수계로 종헌 · 종법 개정을"

원로의장 도광 스님 '종단 정체성 탐구' 세미나서



現 구족계, 소승불교의 계율
'보살승' 지향 태고종과 모순
출가자 지위 확보, 향후 과제

태고종의 모든 출가자는 빠짐없이 구족계(具足戒)를 수지하도록 종헌 · 종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족계 수지는 보살승을 지향하는 태고종에게는 '모순' 이며, 모든 종도가 보살계를 수지토록 종헌 · 종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고종 원로의장 도광 스님<사진>은 12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태고종 총무원이 개최한 '한국불교태고종 정체성 탐구 제1차 학술세미나' 에서 현재 태고종 수계 전반에 대해 고찰하며 현 구족계에서 보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도광 스님에 따르면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됐다' 는 의미의 구족계는 그 수계 대상을 미혼의 비구, 비구니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족계는 "초기불교 당시 세속의 삶을 포기한 비구와 비구니에게 음행을 근절학고 수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했던 부처님의 엄격한 지침"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태고종은 출가자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가자의 성직(聖職) 또한 인정하는 종단이기 때문에 구족계를 수지할 경우 율장의 가장 큰 죄인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는 게 도광 스님의 지적이다. 수계 문제 해결에 종단의 명운이 걸렸다는 도광 스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어 도광 스님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이 '대승불교' 에 있음에 주목했다.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성취의 모델이 '보살' 에 있고, 이를 비탕하는 계율이 '보살계' 에 있기 때문이다.

도광 스님은 "〈범망경〉에서 '보살계' 는 '불성(佛性)' 과 동일시되고 있다. 불성이 모든 존재를 포함하듯이 보살계가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면서 "보살계는 진리이며, 존재의 참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도광 스님은 역사적인 면에서도 대승불교보살계가 주류를 이루고, 관련 연구 문헌들도 보살계에 집중돼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매년 6월 15일 '보살계도량' 을 열고, 국왕이 보살계를 수계하는 것이 통례로 자리잡고 있었다.

도광 스님은 "소승의 구족계는 해동불교 역사 안에서 몇 권의 저술만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현존하는 자료는 전무하며 흔적을 찾기 어렵다"면서 "1600년 한국불교 역사 안에서 고증이 가능하며, 실제로 실행됐던 계율은 대부분 대승보살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광 스님은 종헌 · 종법 개정을 통해 태고종과는 맞지 않는 구족계가 아닌 보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광 스님은 "태고종 종헌 · 종법에는 출가자가 구족계만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태고종은 다불다보살을 모시는 대승보살종단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태고종 종도라면 출 · 재가자를 포함해 보살계의 수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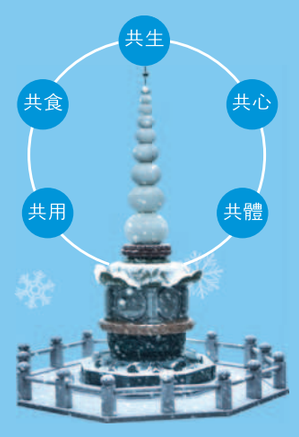
또한, 독신으로 금욕적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종단 스님들을 위해서도 수계 범위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 도광 스님은 "독신 수행을 하는 종단 스님들의 수행방식도 태고종의 일부이며, 이들의 생각과 방편도 모두 인정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종헌 · 종법을 바로잡아 구족계 수계를 강제가 아닌 '선택' 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살계로 통일 시 생기게 될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로서 태고종 출가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도광 스님은 "역사적으로 계율은 성직자로서 사회적 신분 부여의 공식적 의례 역할을 해왔다. 출가자의 지위는 전법사나 재가신도와 반드시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법계고시와 관련된 종헌 · 종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 김용태 동국대 교수, 김경집 진각대 교수 등이 태고 보우와 태고법통, 태고종조관 등에 종단 정체성과 관련된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제7회 계절발표회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널리 알리고, 아울러 중요한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1회의 학술대회 및 4회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공학자들을 초청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제7회 계절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 12. 19 (토) 13:30 – 17:40 ■ 장소 :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1부 / 개회식 (13:30 ~ 14:00)

2부 / 발 표 (14:10 ~ 17:30)

제1발표
· 발 표: 윤소희(위덕대)
· 논 제: 한마음선원의 음악 운용 실태와 미래 방향
· 좌 장: 박범훈(불교음악원장)
· 논평1: 전영주(상명대)
· 논평2: 손인애(서울대)

제2발표
· 발 표: 인경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
· 논 제: 대행스님의 주인공 화두명상
· 좌 장: 혜선스님(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 논평1: 문진건(동방문화대학원대)
· 논평2: 이필원(동국대, 경주)

폐회식 (17:30 ~ 17:40)

YouTube

2020년 12월 19일(토) (13:30 ~ 17:40)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YouTube 한마음선원 으로 검색하세요

발표방법 · 발표 : 30분 · 논평 : 10분씩 2인의 논평
· 토론 : 50분간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

◈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

한마음선원 생중계링크 :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031)470-3276/3277 E-Mail : ds7788@hanmaum.org

“삼릉곡 약사불, 석굴암 대신해 일제 반출”

아라키 연구원, ‘경주 남산 불교문화재’ 학술대회서

일제 의해 경주 남산 첫 조사
‘석굴암 경성 이전’ 실패하며
조사된 삼릉곡 약사불상 반출
1915년 열린 공진회서 전시
‘청와대 불상’ 반출 동일 이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남산은 불국토다. 곳곳에 불상과 사지들이 자리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경주 남산의 불적을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1902년 건축학자 세키노 다다시에 의한 조사를 단서로 1906, 1909년에 걸쳐 일본인 학자들의 조사들이 이어졌다. 경주 남산에 대한 일제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건 1923년이지만, 이미 모로가 히데오 · 고다이라 료죠 등 경주 지역 일본인 유지들이 남산 불적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경주 남산의 위상 변화는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하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이 1915년 당시 경성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에 출품돼 미술관 중앙홀에 전시되면서부터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은 공진회 전시를 위해 반출된 이후 계속 서울에 남게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어떻게 발견되고 반출됐는지에 대한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심지어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반출에 대해 내부관계자인 오바 쓰네키치 조차 “박물관의 미술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원위치의 환경과 함께 있음으로써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내부에서도 불편한 시선이 있었던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반출에는 어떤 막전막후가 있었던 것일까.

경주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아라키 준 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원은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반출 이면에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초대 조선 총독이 집요하게 추진했던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 이 있었다고 봤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사진 왼쪽) 오른쪽 사진은 공진회 중앙홀에 안치된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의 모습. 옆에 감산사 석불입상 2구가 협시로 들어섰다. 모두 석굴암을 모티프로 조성된 것이다.

아라키 연구원은 12월 11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미술사학회가 경주 남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반출 과정과 이유를 추적했다.

아라키 연구원에 따르면 세키노 다다시가 1911년 경주 남산을 조사하며 남긴 야장에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1914년 10월 매일신보에는 삼릉곡 약사여래좌상과 감산사 석불입상 2구를 ‘경주 석굴암 석조조각의 모형’ 으로 공진회에 전시한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실제, 공진회 중앙홀에는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이 안치됐고, 좌우 협시로 감산사 석불입상 2구를 배치됐다. 중앙홀 양측 벽에는 석굴암 부조상 14체의 등신대 석고모형이 설치됐으며,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 즉, “석굴암을 기본 모티프로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을 본존불로 안치한 것”이다.

왜 일제는 경주의 불상들을 반출해 경성에 석굴암을 형상화하려고 했을까. 아라키 연구원은 데라우치 총독의 행보에 주목했다. 데라우치 총독의 조선사관은 ‘일선동조론’ 과 ‘조선정체성론’ 으로 귀결된다. 그는 “고대 일본과 관련해 신라왕조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이룩했으나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자립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조선왕조는 국력이 쇠퇴해 멸망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라키 연구원은 “데라우치 총독에게 한일병합은 조선이 일본과 뿌리를 같이 했던 고대로 회귀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기획이었다. 신라 미술 최고봉인 석굴암을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에 안치하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시각화하는 작업”이라며 “데라우치 총독의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은 그의 제국주의적 야망서 착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라우치는 조선왕조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곳에 석굴암을 고스란히 옮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할 것을 계획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공진회 미술관을 석굴암처럼 꾸민 것”이라면서 “이때 본존불로 안치된 것이 바로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라키 연구원은 현재 ‘청와대 미남불’ 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도 공진회 석굴암 본존불 후보로 반출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해당 불상의 반출 시기가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 무산 시기와 일치한다”며 “데라우치 총독은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의 경성 반출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경성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 남산 불교문화재, 어제와 오늘’ 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제3공화국과 경주 남산(강희정, 서강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 남산(이명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경주 남산 불적의 형성과 성격(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남산의 통일신라 시대 불교 석경(하정민, 서울대) 등이 발표됐다.

불교교육聯, 언택트로 학생수련회 연다

교법사단과 공동으로… 28일 종립학교서

전국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청소년 불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만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가 주최하고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백미나, 평택 청담고 교법사)이 주관하는 ‘2020학년도 불교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임원수련회’ 가 12월 28일 전국의 26개 종립학교에서 언택트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후원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불교학생회 지도자 및 교법사 130여 명이 참여하며, ‘하이(Hi) 화쟁’ 을 주제로 한 협력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 화쟁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교법사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종교수업 용도로 만들어 지난 10월 발간한 교재다. 이 교재는 갈등 개념 알기와 해결 방법, 갈등 조정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교법사단장 백미나 교법사의 리더십 특강과 만들기 수업, 불교학생회 활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원격 수업 프로그램인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 내용을 탑재해 각 학교에서 수업 가능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김세연 동대부중 교법사가 비즈만다라 만들기를 콘텐츠로 제공한다. 미리 제공한 키트를 활용해 완성된 만다라는 부처님 전에 올려 기도하고 사진을 찍어 제출한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 파라미타를 소개합니다’ 를 통해 각 종립학교 소개 경연도 펼쳐진다. 12월 20일까지 108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수상작을 선정, 수련회서 감상하도록 한다.

교법사단은 “종립학교 지도자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언택트로 진행되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지도자가 탄생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공교육 다양화, 불교가 함께 할 것”

원행 스님, 조희연 교육감 예방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공교육 다양화에 불교계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비용 문제로 전통문화 체험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다가온다. ‘생태전환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강화해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서 “관련해서 불교적인 지혜를 참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행 스님은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치중하다 보니 교양적인 부분은 뒤떨어져 있다고 본다.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들을 잊고 산다”면서 “ ‘채식선택제’ 를 학교 급식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찰음식의 요리법을 영양교사들에게 연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적으로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우웃따라 스님 등 불교활동가 지원

12월 9일 지원금 전달식

올해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에 미얀마전법선원 주지 우웃따라 스님과 이준형 바라오페라단 기획실장,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정란 자비신행회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은 12월 9일 제17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동출 스님은 이날 우웃따라 스님과 이준형 기획실장, 박재현 소장, 정란 사무국장에게 각 300만 원을 전달했다.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은 이날 지원금을 전달받고 “불교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는 데 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동출 스님은 “여러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불교활동가 지원이 17회를 맞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활동가 여러분들이 모두 부처님”이라고 격려했다.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불교활동가 지원기금이 불교활동가들의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운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활동가지원기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활동하는 불교활동가들을 격려 ·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송지희 기자

서울권 사찰 법당 신도 상주 금지

조계종 총무원 지침 시달
오는 12월 20일까지 시행
서울권 법회 ‘비대면’으로
타지역은 20% 인원 제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서울 지역 사찰에 신도들의 법당 상주를 금지시키는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찰 지침’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사찰들은 12월 20일까지 법당에 신도들의 상주가 금지되며 참배만 가능하다. 법회 등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법당에는 스님들만 참석해 법회와 기도를 봉행하도록 했다.

서울 이외 지역 사찰들에도 방역 지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 이외의 사찰들은 법회 등 대면행사 시 개인 간격 2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수용인원을 실내공간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조계종은 “지자체별 방역지침을 확인하고 우선 준수해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전 사찰에 공통적으로 △사찰 내 모든 인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찰 주관 모임 중단 △신도 및 외부인 공양 중단 △공용 음수대 운영 중단 △사찰 종무원, 상주대중 시차 출퇴근 · 공양 및 고위험시설 출입금지 등의 지침을 시달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전문서점, 새 이름 ‘향전’

9일 공모 선정결과 발표

조계종 출판사(대표 남배현)가 운영하는 불교전문서점이 새이름 ‘향전’ 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향전(香田)’ 은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명칭으로 ‘향기로운 밭’ 을 의미한다.

조계종 출판사는 12월 9일 “불교전문서점 새 이름이 ‘향전(香田)’ 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개원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명칭으로 대중과 만나게 된 만큼, 앞으로 일반적인 서점을 넘어선 불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전문서점은 2009년 처음 문을 연 이후 11년간 특별한 상호명 없이 운영돼 왔다. 이에 조계종 출판사는 새로운 명칭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최근 새이름 공모전을 진행했다.



불교전문서점 내부 전경.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00여 개 작품이 응모됐다. 도반 HC 대표이사 지현 스님과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 조계종 출판사 편집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불교전문서점의 정체성과 참신성,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의 ‘향전’ 을 최종 선정했다.

‘향전’ 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긴 불교서적을 통해 세상을 보다 더 향기롭게 만드는 텃밭이 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차선작으로는 달마재, 만다라, 선재, 풍경소리, 나비 등 4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조계종 출판사는 “올해 개원 11주년을 맞은 불교전문서점 ‘향전’ 이 일반적인 서점을 넘어선 ‘불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점 내 다목적 회의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의 공간은 모든 불자들에게 개방해 기자간담회, 세미나, 불서읽기 모임, 카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031-2070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본지 ‘코로나&불교’ 기자상 기획상 수상

불기협, 7일 시상식 개최

본지가 보도한 ‘코로나&불교’ 가 한국불교기자상 기획 · 해설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신성민)는 12월 7일 서울 조계사 설법전에서 ‘2020년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을 개최했다.

이날 본지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현대불교신문 기자의 ‘코로나&불교’ 시리즈 보도는 기획 · 해설부문을 수상했다. 해당 보도는 코로나19 창궐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한국불교계의 현재를 돌아보고 이를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에는 ‘코로나19, 채식을 돌아보다’ 를 기획연재 한 윤호섭 BTN불교TV 기자가 수상했으며, 기획 · 해설부문은 여태동 불교신문 기자의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 가 공동 수상했다. 취재보도부문은 김내영 법보신문 기자의 ‘불교계의 차별금지법 인식과 제정 노력’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완 기자



본지 송지희 기자(사진 오른쪽)가 불교기자상 기획 · 해설부문을 수상하고 있다.

재한 이주민에 마스크 1만장 지원

조계종 · 마주협, 9일 전달식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불자들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다.

조계종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호산)는 1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한이주민법당 및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마스크 1만 장을 전달했다. 애초 조계종은 매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진행해 온 ‘이주민 어울림한마당’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방역마스크 지원으로 변경했다.

송지희 기자

호국본찰 범어사로 '호국영웅' 돌아오다

'故 이형술 하사 귀환행사' 성료

제1회 전몰장병합동위령재 현장
최고 예우 故 이형술 하사 귀환
국가보훈처, 범어사는 호국도량
유가족 및 참전유공자 50여 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가보훈처가 진행한 '호국영웅 故 이형술 하사 귀환행사'가 12월 4일 범어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의 구호처였던 범어사가 69년 만에 돌아온 호국영웅을 위해 다시 산문을 열었다.

국가보훈처가 진행한 '호국영웅 故 이형술 하사 귀환행사'가 12월 4일 범어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과 총무국장 보운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국장 스님들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및 국가보훈처 직원, 유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1952년 4월 6일 범어사가 처음 진행한 전몰장병합동위령재 현장인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故 이형술 하사의 위패는 유가족 품에 전달됐다. 위패는 범어사 대웅전 아래 마련된 제단에 안치됐고 불자들은 헌화와 분향으로 호국영웅을 기렸다.

이날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은 최고의 예우로 호국영웅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범어사를 찾았으며 호국활동 주역인 불교계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서 의장병이 전달한 故 이형술 하사의 위패는 임장완(80) 씨가 받아 제단에 안치했다. 임씨는 이 하사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육군 8사단 10연대에서 함께 복무한 참전 전우다. 이어 유족들에게 이 하사의 신원확인통지서가 전달됐으며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경과보고 후 내빈들의 헌화와 분향 및 6.25 참전 영웅기장 수여식이 이어졌으며 반야심경 봉독과 승무로 고혼의 넋을 기렸다. 마지막으로 위문품과 포상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의식은 마무리 됐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먼저 "호국의 영웅 故 이형술 하사님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시며, 그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먼 거리와 시간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주셨다. 긴 시간 동안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위로했다.

이어 스님은 "6.25 전쟁 당시 범어사는 피난민들의 의지처였고, 군 장병들의 구호와 치료를 자처했다. 특히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39분의 유해를 보제루에 안치한 이래 수년 간 전몰군경의 위패를 모시고 넋을 위로했다. 우리 불교는 호국불교정신을 면면히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범어사는 낙동강 전투 당시 순국한 장병들이 안치되었던 유서 깊은 곳이자 국립현충원의 효시이다"며 "조국수호를 위해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 이형술 하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치열한 전투 중에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와 조국 속에 면면히 살아 숨 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하사는 결혼한 형을 대신해 1951년 6월 25일, 19세의 나이로 자원입대했다. 1951년 10월 11일 강원도 양구 백석산 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백석산 지구 전투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를 탈환하기 위해 국군 2개 사단(7 · 8사단)이 공격작전을 수행한 곳이다. 유해는 2015년 9월 24일 강원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됐으며 남동생인 유족 이형삼 씨의 시료 채취로 DNA 검사를 실시, 최종 신원을 확인했다. 이 하사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코로나 한파에도 소외이웃 향한 세밑 보시 활발

통영불교聯 · 부산진구불교聯
대구 동화사 등 자비보시 눈길




사진 왼쪽부터 통영불교연합회 간편식 전달식, 통영 대성암 김장김치 전달식, 부산진구불교연합회 백미전달식 사진.

코로나19 확산과 한파에도 세밑 보시가 활발히 이뤄져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통영불교연합회(회장 종묵)는 12월 6일 통영시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유 및 간편식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은 통영불교연합회와 통영불교거사림, 보현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통영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보현사 주지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대성암 승원 스님, 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안휘성 통영거사림 회장 외 회원 30여 명이 동참했다. 난방유는 총 4800리터가 32가구에 전달됐으며 라면, 참치캔, 과일, 발열내의 등을 담은 선물은 한 부모가정 및 조손 가정 18가구에 전달됐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코로나 기간에 춥고 배고픈 곳은 더 힘들 것이다"며 "오늘 나눔과 봉사가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도 12월 4일 경내에서 '제6회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를 진행했다. 김장 김치는 지역 소외 이웃 50세대에 전달됐으며 이날 김장에 필요한 배추 및 재료 등은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마련됐다. 대성암 신도들은 배추 170포기와 국산 재료로 정성을 담아 김장했으며 아이스박스 50개에로 나눠 담아 무전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김치는 무전동 동사무소를 통해 지역 소외 이웃에게 배달될 예정이다.

대성암은 코로나19로 인해 김장을 하기 전 많은 고심을 했다고 전했다. 매년 상반기에 진행해 왔던 청소년 백일장과 경로잔치는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추운 겨울, 나눔을 위한 손길이 코로나 19로 인해 더 사라질까 염려했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눔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김장김치 나눔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오늘 김장은 신도들이 직접 키운 배추와 무이다. 건강을 기원하며 마련했으니 어르신들과 어려운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세운)는 12월 3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백미 전달식을 개최했다. 쌀은 10kg 40포대 총 400kg이며 전달식에는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총무 도원 스님과 중도불이선원 주지 지공 스님,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쌀은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총무 도원 스님은 "회원 사찰 및 스님들이 십시일반 모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나눔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주지 사요)도 12월 9일 동절기 이웃사랑 나눔 봉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화사 아래 학구마을 10가구에 500장씩 총5000장을 동화사 신도회 회원들이 주관하여 나눔 봉사를 하게 됐다. 나눔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사요 스님,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동화사 국장소임 스님들과 장세철 신도회장 ,신도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한마음으로 전했다.

복성산업개발(회장 박금태, 대표이사 김승하)은 12월 3일 서귀포시 서흥동 소재 일광그린아파트 준공식 현장에서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준공식을 열고 서귀포시 주민들을 위해 서흥동 장학금 500만원, 서귀포 장학금 500만원, 서귀포시 발전기금 1000만 원, 서흥동 노동자를 위한 자비의 쌀 10kg 200포대(1000만 원 상당) 등 총 3000만 원 상담의 장학금과 백미를 전달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태고종前 총무원장 도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북교구 재무국장 현진 스님, 무형문화재 지화 이수자 현담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복성산업개발 회장 박금태, 부회장 전문순, 대표이사 김승하, 사장 노명선 등 임직원, 서귀포 서흥동 관계자 사회복지 모금회 제주 서귀포 지사장, 서흥동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도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아파트 준공과 창립10주년을 축하하며 나눔을 실천해 주는 소중한 인연에 감사를 드린다" 며 "보다 복된 날이 되어 복성산업 개발기업이 사회에 귀감이 되는 회사로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고 당부했다.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이 곳 서귀포시에서도 회사의 경영철학인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상생 나눔 인재불사 나서다

12월 8일 동명대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재단법인 신뇨엔이 동명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인재불사 원력을 이어갔다.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은 "인재불사는 상생을 위한 나눔이며 스승이신 원주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은 12월 8일 동명대 대학본부 경영관 3층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발전기금은 총 1000만 원이며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 사무국장 영준 국원, 박남규 동명대 부총장, 장재진 학생처장이 참석했다.

정경 국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은 함께 상생을 해 나가야 한다"며 "학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종교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나눔은 어려워도 멈추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찾게 됐다"고 말했다.

박남규 부총장은 "신뇨엔의 나눔은 오늘 처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하다"며 "신뇨엔의 사회 공헌과 나눔은 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은 2018년부터 꾸준하게 인재불사를 위한 발전 기금을 동명대에 전달하고 있다. 발전 기금은 학생들의 해외 불교지역 탐방 및 장학금으로 활용됐으며 불교동아리 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회향됐다.

장재진 학생처장은 "동명대에 공식적인 불교동아리가 승인되고 활동한 것은 2018년 부터였다"며 "신뇨엔을 비롯해 스님들의 관심으로 25명의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운사, 비댓골 풍력발전 건설 반대 결의

12월 9일 고운사 본말사 반대결의문 발표



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 본말사 대중이 12월 9일 고운사 인근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성 고운사는 9일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본말사 스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운사 인근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를 결의했다.

이날 고운사 본말사 대중들은 "고운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통사찰로 동법 제3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보물 2점 지정문화재 2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라천년고찰"이라며 "고운사는 화엄사상이 확립되고 전파되는 역사성을 지닌 매우 중요한 사찰이며, 고운사 주변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보전가치가 뛰어난 산림보호지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깽깽이풀과 노루귀 등 식물보호구역이다. 또 지역민의 종교적 귀의처, 휴식힐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먼저 고운사와 주변 생태의 가치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고운사 인근 건설 예정인 풍력건설단지는 풍력단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음과 저주파로 불과 500m 거리인 고운사와 주변 생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수행환경과 문화재 피해가 심각할 것이며 산림보호림 파괴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서식지 생태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생업 종사자들의 삶의 근간도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운사 본말사 대중들은 "제16교구 본말사 스님들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에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해 강력한 반대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 박영애 영주지국장

동곡당 일타 대종사 21주기 추모재

12월 6일 은해사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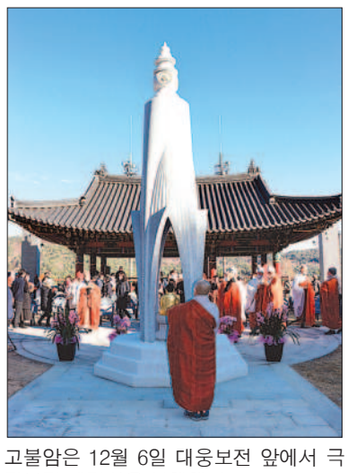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2월 6일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경내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BBS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 스님, 은해사 관장 돈관 스님, 동곡문도회 대중 스님, 이연화 은해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된 다례재에서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은 "이 엄중한 시기에 동참한 문도 대중 스님은 일타 대종사 스님을 뛰어 넘는 대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행장소개, 종사열반과 함께 일타 대종사의 육성법문을 경청하며 가르침을 되새겼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인사 고불암, 부처님 진신사리 극락보탑 제막

12월 6일 제막식 거행… 1381명 동참


고불암은 12월 6일 대웅보전 앞에서 극락보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해인사 고불암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극락보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불암(감원 심우)은 12월 6일 대웅보전 앞에서 극락보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식은 코로나 19로 인해 간단하게 진행됐으며 △명종5타 △삼귀의 및 반야심경 △경과보고 △제막 △감사패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감원 심우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명실상부 적멸보궁"이라며 "불자들의 기도와 정진을 위한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인사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2017년 5월 25일 고불암 前 감원 적광 스님이 스리랑카 컨디 지역에 위치한 불치사에서 부처님 치아사리를 이운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사리탑 불사를 마무리 했으며 설판은 정원구(대구) 불자가 희사했다. 사리탑 불사를 위해서는 불자 5800명이 동참했으며 복장 불사를 위해서는 1381명의 불자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현불 논단

코로나19 해법은 '자비'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자비, 고통 근원 제거하는 사랑
'사회적 지지' 지각 확대에 효과

타인에 높은 자비심 보이게 되면
경험자는 모든 게 자비롭다 느껴

코로나19로 관계 훼손 문제 심각
2~3년 뒤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이를 대비할 자비의 용대가 필요

자비의 의미를 검색해 보니 '철저한 무아사상(無我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중생에게 실제로 즐거움을 주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며, 근본적으로 근심 걱정과 슬픔의 뿌리를 뽑아내어 주는 지극한 사랑' 이라고 나온다.

'복합비애' 라는 고통에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에서 자비는 대표적인 중재 요인 중의 하나이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약이 필요하듯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자비는 심리적 치료제이다.

바로 그 자비는 다른 중재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란 한 개인이 자신의 대인관계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정서 · 정보 · 물질 · 평가적 지지를 말한다. 여기에 정서적 지지는 관심, 애정, 신뢰, 존중을 말하며, 정보적 지지는 구직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질적 지지는 일을 도와주거나 상대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적 지지는 행동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말한다.

나눔 중심의 명상프로그램을 구조화하다 보면 존중과 배려라는 정서적 지지가 항상 바탕이 된다. 이를 토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누다 보면 참가자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된다. 이어 차와 소담한 주전부리를 나누게 되면 코와 입이 열린다. 목이 마르던 참에 제공된 차담은 참가자들의 오감을 더욱 더 확장한다.

"와! 너무 맛있어요. 준비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칭찬이 이어지면 따뜻함으로 녹던 마음이 드디어 그 문을 활짝 개방하게 된다. 대표적인 네 가지 사회적 지지를 자비의 마음으로 운용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의 예를 든 것이다.

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높은 자비심을 보여주면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 또한 다른 이들도 큰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만큼 상대방 또한 자신에게 지지한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은 차례로 공동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증진시킨다.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대해 자비를 행했을 때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향상되어 더불어 미소짓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인 것이다.

다른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연민심은 자비희사의 네 가지 우주적 마음 중에서 '비' 에 해당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연민의 증가는 타인과의 친밀감, 연결감과 관련이 깊고, 사회적지지 지각과 대인관계 신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민적인 목표는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도 관련이 있었다. 여기서 연민적인 목표란 자신의 이득과 상관없이 타인의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훼손하는 데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로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 그리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2, 3년 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사회적 압력을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면 어떤 이상 현상이 나타날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비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지지하는 관계치유 훈련이 완비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수호할, 철저히 준비된 자비의 용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혜능선사의 반야설법

조계종 소의경전인 〈육조법보단경〉은 육조 혜능대사가 설법한 내용을 제자인 법해 스님이 모아서 기록하여 편찬한 선사어록이다. 혜능대사의 설법 내용이 부처님 말씀처럼 훌륭하다고 하여 '경(經)' 이라 존숭하였다. 〈마하반야바라밀경〉의 반야 공(空)사상을 바탕으로 누구나 단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법한 그의 남방의 돈오선(頓悟禪)은 중국 선종의 정통선법이 되었다.

"여러분, 깨달음의 반야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각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고 본래 성품(불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불성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본래 차별이 없다. 본성이 미혹하면 어리석고 본성을 깨달으면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육조단경〉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화엄경 여래출현품' 에서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반야지혜)와 공덕을 온전히 갖추지 않은 자가 없지만, 단지 망상 번뇌로 마음이 어두워서 증득하지 못할 뿐"이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본래 마음에는 반야지혜가 있다고 혜능선사는 설파하였다. 〈반야심경〉에 "모든 보살과 부처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설하였다.

무지몽매하여 세상살이에 쩔쩔매는 중생에게 큰 희망이요, 광명과 같은 설법이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신의 종이 아니라 "사람이 부처이다. 내가 부처"라는 가르침이다. 인도에서 전래된 달마대사의 선법은 중국에서 선종으로 발전하여 누구나 단번에 부처가 되는 선지식과 생불조사가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이 대의왕(大醫王)이라면, 법사는 요리사이다. 요리사는 지역(양식, 한식), 시대(전통음식, 현대 퓨전요리)의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적절하게 음식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법사는 대소승의 경전과 현대사상까지 이해하여 현재 법문을 듣는 청법자가 원하고 이익되는 설법안을 만들어서 설법을 해야 한다. 특히 자기가 전공한 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우수한 설법안(레시피)이 많이 준비되어야 대법사가 될 수 있다.

강사와 법사는 다르다. 강사는 경전을 이성적이고 학구적으로 미주알고주알 하나하나 해설하고 강설하는 교수이다. 그러나 법사는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실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감성적으로 격동시켜서 인도하는 홍법사이다. 법사는 여래의 사자(使者, 심부름꾼)이며 화신불(化身佛)이다.

일반인들은 수행이 깊고 무르익은 큰스님의 수행담과 깨달음의 경계에 대한 설법을 듣기를 원한다. 노스님이 혼자서 완전한 설법안을 작성하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겉에서 설법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주는 보조법사가 필요하다. 유명 학원강사도 수 명의 보조교사팀이 있어 공동으로 강의안을 제작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고통 받는 사람에게 어둠에서 깨어나는 용기를 주고, 세상을 향도할 수 있는 혜능선사의 반야 설법, 성철선사의 '백일법문' 같은 사자후를 기대한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코로나 속 불교, '의지처'되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교계에서 종교집회와 기도신행 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희소식이 들려왔다.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5개 종교 중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과 마음 치유에 대한 행보가 호감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평가 부분으로 불교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얻었다. 코로나 이후 불교에 대한 타종교인, 무종교인들의 호감도 상승은 코로나 이후 대응과 마음 치유를 골자로 한 불교계 행보에 대한 긍정인식을 확인해주는 결과다.

그동안 불교계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코로나 방역 인력에 대한 치유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방역 봉사,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서왔다.

코로나 블루로 칭해지는 사회적 우울감을 치유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왔다.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불교가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저성장과 저고용이 장기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계층간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교는 국민들이 겪는 우울함, 답답함, 좌절감을 위로해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본래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면밀히 진단해 해결방법을 제시해왔다.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에서 많은 이들이 종교의 가치를 '의지처' 에서 찾았다. 앞으로 불교는 국민들의 의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교 문화 창달의 기회로

내년 정부가 명상 활용 · 산사문화재 활용 · 불교영화제 등 사업에 예산을 편성, 불교문화산업 전반에 활기가 일 것으로 보인다.

종교문화사업들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내년도 예산은 653억 원이며, △종교문화활동 195억 원 △전통문화유산보존 272억 원 △종교문화시설 124억 원 등이 세부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교계는 뮤지컬 공연과 연극, 불교 전통 의식을 주제로한 음악의 향연 등 축제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문화 포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불교문화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불교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문화진흥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현재 한국의 의식주 및 유무형의 전통문화 자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전승하는 곳은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가 사실상 유일했다. 하지만 불교계는 전통문화에 대해 보존과 전승에만 머물러 왔다. 새해 불교문화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문화 활용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문화학자 마거릿 미드는 21세기는 정체성과 동일성의 문화시대로 정의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로 글로벌화하는 시대에서는 지역 정체성이야말로 한 민족, 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불교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새로운 문화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의 신호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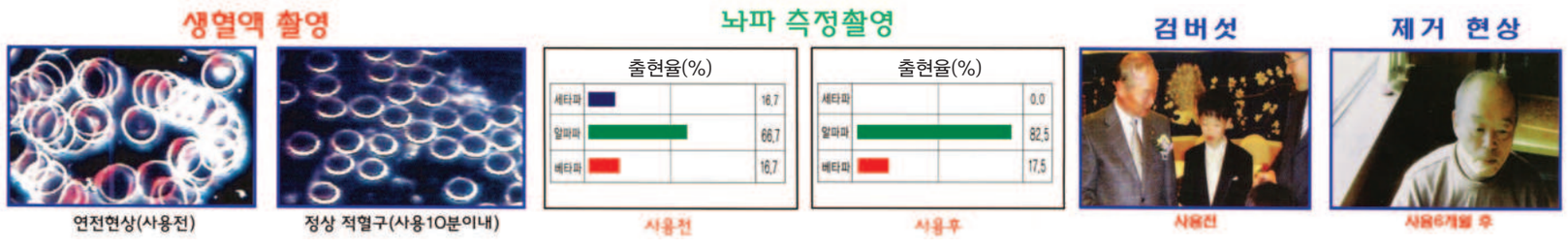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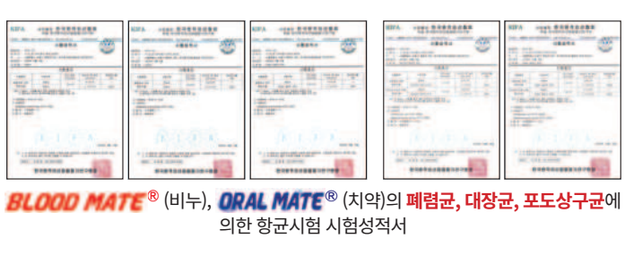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9~12/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7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스님	민족사
4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스님/정원규	불광출판사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책세상

현대교육 문제의 대안은 '불교교육'



불교교육 길라잡이

이송곤 지음

운주사 펴냄 / 1만6천원

불교의 교육학적 가치 조명
불교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
이론체계 전개과정 등 주목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의 교육학적 가치를 조명한 신간이 나왔다.

불교교육학은 전반적으로 불교의 교육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교의 교학과 불교사에 나타나 있는 교육철학 또는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불교적 교사와 불교적 학생 사이에 전개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등을 하는 것을 불교교육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교육학은 제도권의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과정과 함께 전개되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서양 학문의 토대 위에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교교육학' 과 '교육학' 은 외형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자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하겠다. 전자는 출세간적 학문에 속해 있고, 후자는 세속적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교교육학은 미래 불교교육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교육학' 은 불교학인가, 교육학인가? 저자는 불교학을 보편성으로, 교육학을 특수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불교교육학의 범주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불교 역사 속에서 불교교육의 교육적 특성과 이론체계, 그리고 그 전개과정 등을 톺아보고 있다. 책은 2600여 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시대별 혹은 종파별로 진행된 가르침의 전승과정을 응축(공통 핵심 가르침)과 발현(핵심 가르침의 시대별 전개)의 두 축으로 설명한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불교교육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음을 닦음으로써 깨달음을 향해 변화해 가는 인간의 형성적인 측면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수행이지만, 마음을 닦음으로써 인격에 변화가 있게 되고 종국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불교는 '교육' 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장점이 있는 불교의 교육에 관해 책은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초기불교, 남방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중관과 유식, 그리고 천태의 교육과정, 불성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의미, 종교교육과정으로서의 불교, 마지막으로 선(禪)의 교육과정 등을 주제로 하여 전체 흐름과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교교육이란 무엇인지, 불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어떠한지, 불교교육이 왜 필요한지? 등 불교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역사적으로 전개된 교학에 나타나 있는 불교교육의 인간 형성 측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교육과 종교로서의 불교와의 접점에 서있는 불교교육에 관해,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불교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와 그 중요성 등에 대해서 알 게 된다.

한국의 응용불교학에 대한 연구는 종교교육학회와 교육학회 등을 중심으로 학문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교육학 저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불교교육학' 을 태동하게 하고 정초(定礎)한 박선영 교수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종교교육학회와 교육학회 등을 중심으로 불교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내고 〈불교와 교육〉(1982), 〈불교와 교육사회〉(1983) 등을 펴냈으나 이후 불교교육에 관한 저서는 시중에서 볼 수 없었다. 이후 저자는 2018년 9월 초기불교와 테라와다 불교의 정통 논서인 〈위숫디막가(淸淨道論)〉을 바탕으로 한 〈불교교육론〉을 펴낸 바 있다.

저자는 "서양사의 토대 속에서만 교육사상이 정립되고 이러한 교육사상이 우리의 교육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융합적으로 만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교교육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교육 실천의 현장에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며 "불교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지혜의 완성을 통한 깨달음, 즉 지혜를 닦음으로써 최상의 인격완성과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온전히 발현시켜준다는 점에서 현대교육 혹은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성적지상주의, 물질주의 등의 문제들에 대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 이송곤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국대 강사를 역임하였다.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 PD로 입사, 청주불교방송 PD를 거쳤으며, 현재 불교방송에 재직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 한국불교학회 회원, 종교교육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발표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불교교육론-초기불교와 남방 테라바다불교의 교육이론〉이 있으며, 논문으로 〈불교경전 이야기의 내러티브 학습방법과 그 교육적 의의〉, 〈듀이의 종교관의 측면에서 본 2015 개정교육과정과 불교 종교교육의 과제〉, 〈'청정도론' 의 칠청정 성립의 의의와 점진적 수행체계로서의 특성〉, 〈칠청정의 지와 견에 의한 청정과 유부의 견도수도 무학도의 비교 고찰〉, 〈천태교판에 대한 새로운 이해-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적 고찰〉 등이 있다.



운문사 승가대학(강원)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텅 빈 가득함

서해명 지음 / 올리브나무 펴냄 / 1만5천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것저것 비교 분석함이 없는 생각의 비무장지대에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염려할 필요 없이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는 조금은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텅 빈 속성을 깨달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스러운 사랑의 세계가 끝도 없이 펼쳐짐을 이야기하는 서해명의 첫 에세이집이다.

2500년 전 어느 날 아침, 설법을 듣고자 모여든 청중들 앞에서 부처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은 잠자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다. 스승의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가운데 가섭 존자만이 미소로 화답함으로써 진리의 법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게 된다. 그날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임으로써 전하고자 했던 '말없는 말' 은 무엇이었을까? 연꽃 한 송이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던 가섭 존자가 연꽃 너머에서 보고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가섭 존자의 눈과 붓다의 눈을 잇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 깨달은 이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 이 사건은 비단 2천 5백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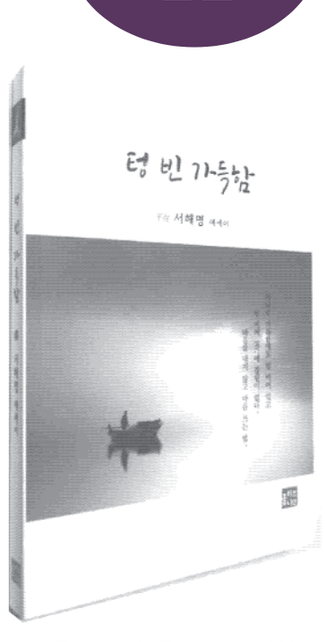
달을 본 사람은 달을 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달을 본' 그 일이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각자(覺者)는 진정한 각자일수록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노릇을 기꺼이 자처한다. '손가락' 노릇을 하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 부처님이 그랬고, 저자 서해명 역시 그렇다. 책은 서해명이 여러 공부를 통해 깨달은, 서해명이 본 '달' 이야기다.

세상의 모든 스승들이 애써 가리켜 보이는 '달' 은 무엇일까. 그것은 허공 저 멀리에 떠 있는 달이 아니다. 진리의 달, 우리가 영원히 회향해야 할 달은 바로 '우리 자신' 이라는 달이다.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저 멀리 떠 있는 진리의 달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각자 '마음의 달' 을 보라고 기꺼이 손가락을 들어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서해명이 이야기하는 '텅 빈 가득함' 그것은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가리켜 보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가 가리켜 보이는 "하나로 가득함에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기에 걸림이 없는 삶"은 우리가 잘만 받아들이고 용해하여 쓰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괴로움의 근거를 지우는 지우개가 될 수 있고, 슬픔을 녹이는 위안의 영약이 될 수도 있다.

저자 서해명은 30여 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다. 종교의 도그마를 뛰어넘는 진리를 찾아 헤매던 중 에고의 칸막이가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모두가 하나인 친밀하고 황홀한 사랑의 장이 펼쳐지는 세계' 를 보게 되었다. 두 권의 시집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와 〈나 없음의 경이〉를 출간했다. 개체성의 감옥에서 풀려나 한없는 자유를 만끽하고 걸림이 없이 모두를 받아주는 사랑의 마당에서 사는 법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소망한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나'라고 하는 몸과 맘의 허상을 떠나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무아지경의 황홀한 세상 이야기



텅 빈 가득함

不在 서해명 에세이

하나로 가득함에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기에 걸림이 없다.
마음을 내지 않고 마음 쓰는 법.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나 없음'의 경이로움을 보고 한없는 자유를 만끽하세요. 내 생각만 없으면
삼라만상의 갖가지 차별 현상 그대로가 곧 절대 평등의 세계이며,
나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세상은 완벽하게 잘 짜여진 하나의 비단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엮여 있어 '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서해명 제1시집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

"나"라는 에고의 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의 이야기— 장엄하고 친밀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절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서해명 제2시집
'나 없음'의 경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해탈한 불교인'이 결혼하면 어떤 옥동자가 태어날까? 일찍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터를 닦은 서해명은 깨침의 종교인 불교를 그리스도교에 접목시킴으로써 '해탈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경의 말씀들과 예수의 비유들이 갖는 참 의미를 발굴하고 확대 증폭하여 인간존재론의 21세기적 비경을 제시, 독자를 무아지경으로 끌어간다.

올리브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10, 705-101
Tel. 070-8274-1226, 010-7755-2261 FAX. 031-629-698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상담 및 강연 요청 ‖ 서해명 010-7770-2644

황폐화된 日 무인사찰, 최초 국유화 전환

日정부 · 종단, 정토종 사찰 콘코지 국유화 결정

박영빈 객원기자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무인사찰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 최초로 무인사찰의 부지를 국유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사찰의 소속종단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종교법인법에 명시된 조항의 최초 실행이라고 전했다. 11월 27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은 무인사찰 부지의 첫 국유화 사례를 특별보도했다.

일본 문화청과 전일본불교회에 따르면 1951년 종교법인법이 시행된 이래 법인 자격을 취득한 종교단체는 2018년 기준 18만여 개다. 문화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3500여 단체가 실제로는 종교활동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불활동종교법인' 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청은 "종교법인법이 시행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쳐 등록이 복잡해졌으나, 한 때 반사회적인 단체가 종교법인을 이용하거나 법인의 대표임원 등이 탈세나 자산은닉에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휴면 중인 불활동종교법인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화청과 전일본불교회는 "자발적인 법인 해산을 보충하는 해결책으로 국유화의 사례를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종교법인법에서 '처분되지 않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문화청은 "해산이 불가능한 불활동 종교법인의 첫 국가귀속 사례인 만큼 모델케이스가 되는 해결책으로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국유지로 귀속되는 사찰은 시마네(島根)현 오다(大田)시에 소재한 정토종 사찰 콘코지(金皇寺)이다. 정토종에 따르면 콘코지는 15세기 경 창건된 고찰로 1952년 종교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재 등록된 신도는 20가구로 2013년 주지스님이 입적한 후 후계 주지의 초빙과 전각 유지관리, 악화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신도회가 2015년에 사찰을 임의 해산했다. 그러나 본당과 종각, 요사채를 포함한 산림 약 12만 평방미터의 재산처분에 관하여 대표자인 주지스님이 입적한 탓에 해산을 결의하여도 청산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법인 뿐인 사찰 국유지화
무인사찰 급증 대안 형태
첫 국가귀속 사례로 주목

지난해 10월 신도회의 임원들은 정토종 시마네현 교구에 도움을 요청, 하야시 케이세키 교구장스님을 청산인으로 내세워 사찰의 정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노후화 되어 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된 사찰 시설과 산사태, 산불 등의 관리 책임을 맡을 수 없다는 이유로 타 사찰이나 지자체 등이 모두 인수를 거절, 해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채 상황이 이어졌다.


황폐해진 법당을 바라보는 前 콘코지 신도. 사찰은 근 8년간 방치됐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이에 정토종과 전일본불교회는 종교법인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콘코지의 부동산을 귀속해 줄 것을 요청, 올해 3월 지자체에서 해산을 인정하고 부지를 국유지로 삼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정토종은 약 100만 엔을 출자, 자자체와 현장을 점검하고 붕괴 시 주변에 위험영향을 미치는 종각과 요사채는 철거, 붕괴 시에도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본당은 내부의 불상과 불구를 정리 후 방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마네현 측은 국유화에 앞서 요사채에 남은 생활도구들과 종각의 범종, 묘지 등의 처리는 기존 신도회와 종단 측의 처분을 요구했다. 정토종 측은 지난 8월 말 묘지에 대한 파묘와 이장의식을 진행했고, 남은 불상과 불구, 범종 등을 이운했다. 신도회 측은 업체에 위탁하여 요사채의 생활집기를 처분했다.

철거와 경내정리작업을 도운 콘코지 신도대표 오타니 후미오 씨는 "집안 대대로 귀의했던 사찰이 없어지는 것은 슬픈일이지만, 우리 세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물에게도 자비행…비단뱀 구하는 스님

미얀마 월라타 스님 '화제'
모든 비용 보시금서 충당


구호중인 미얀마 비단뱀과 포즈를 취한 월라타 스님. 사진출처 = 로이터통신

미얀마 양곤에 불법 포획된 뱀을 구호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12월 4일 '로이터 통신' 은 미얀마 양곤에서 비단뱀 구호활동을 펼치는 스님을 보도했다.

미얀마 양곤에 있는 세익타 툭카 테투(Seikta Thukha Tetoo)사원에 주석하는 월라타 스님은 5년 전부터 불법 포획되어 죽거나 암시장으로 팔려가는 미얀마 비단뱀 구호를 시작했다. 미얀마 비단뱀은 세계 5대 대형 뱀 중 하나로, 멸종위기 취약종이나 온순한 성격과 쉬운 사육 난이도로 파충류 애호가들에겐 반려동물로 선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밀수, 혹은 가죽을 얻기 위해 자주 불법 포획되고 있다.

월라타 스님은 "사람들은 보통 뱀을 잡으면 돈을 벌기 위해 밀수꾼을 찾거나,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곤 한다. 그러나 살생이라는 악업을 쌓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선업을 쌓고, 자연생태계 순환을 보호하는 데 도와달라"며 비단뱀을 구호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사원에서 뱀 임시보호소가 시작된 이래 주민들과 소방서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포획한 뱀을 월라타 스님에게 데려오고 있다. 스님은 버마 비단뱀을 비롯해 코브라 등의 뱀을 구호하여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살핀다. 뱀의 먹이로는 한 달에 약 300달러가 소요되며 모두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다.

월라타 스님은 최근 흘로가(Hlawga)국립공원에서 열린 방생법회에서 "뱀이 대자연 속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지만 다시 포획될까 걱정된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금 포획되면 죽거나 암시장으로 팔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 조동종 선불교協, 사형제 폐지촉구

현재 미국은 전체 50개주 가운데 27개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조동종 선불교협회(SZBA)' 가 연방정부 법무부를 향해 사형제 폐지와 사형 집행 중단 성명서를 발표해 화제다. 12월 4일, 불교전문매체 '라이온즈 로어(Lion's Roar)' 는 SZBA가 발표한 '사형제 폐지, 사형 집행 중단 성명서' 를 인용해 보도했다.

SZBA의 성명은 지난 11월 25일 '뉴욕 타임즈' 에서 보도한 '미 연방 법무부의 다양한 사형 집행법 허용 규정' 에 대한 반발이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총살 및 전기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형 집행 방법을 허용하며 연방 사형수 3명에 대해 추가로 사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의 취임 전 연방 사형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며, 새 규정은 1927년 이후 연방 사형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간 중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SZBA는 성명서에 "부처, 예수, 무함마드, 간디 등 주요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불살생(不殺生)' 을 강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했다. 종교인으로서 국가가 후원하는 살인과 처벌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시작했다. 이어서 "사형제는 폭력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잔인하게 만든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사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어떤 증거나 통계도 보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믿음과 자비를 가진 자들이 사랑과 구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의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회적, 개인적 변혁은 언제나 가능하고 상처입은 사람도 변화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어야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일의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ZBA는 초기경전인 〈담마파다〉를 인용해 성명서를 마무리 했다. "담마파다 129절에는 '모두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제 몸에 견주어서. 남을 죽이지 말라. 죽이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을 가슴에 안고 살기를, 그리고 모든 존재를 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성명서에 대해 다른 종교들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세계에 단 하나? 육비 지장보살 만다라 발견

15세기 경 작품으로 추정
전례 없는 이색적인 도상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지장보살과 그 주변을 둘러싼 1만여 분의 작은 지장보살. 이런 희귀한 '지장보살만다라' 가 발견됐다. 11월 2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교토 신문' 등 주요 일간지들은 이 놀라운 발견을 특별보도했다.

만다라가 발견된 곳은 사가(滋賀)현에 소재한 천태종 사찰 쵸쥬지(長壽寺). 8세기 초반에 건립된 천년고찰로 한때 24곳의 산내암자를 거느렸던 대찰이다. 긴 역사에 걸맞게 쵸쥬지는 경내에 국보와 중요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육비지장보살만다라(六臂地蔵曼荼羅)' 는 지난해 쵸쥬지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발견됐다.


새롭게 발견된 '육비지장보살만다라' . 일본에서도 전례가 없는 불화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쵸쥬지의 주지 후지시 료도 스님은 "선대 주지스님에게 이야기는 들어 '특이한 지장보살도가 있다' 라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모습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실시된 조사 중 사찰에서 소장 중인 만다라들이 화제에 오르면서, 스님이 조사를 위해 방문한 학예사에게 지장보살도를 이야기 했다. 절의 창고 안쪽에 방치 중이던 두루마리를 발견, 조사원들 앞에서 펼치자 만다라가 세상에 드러났다.

조사를 맡은 현립고고박물관 아마시타 리츠 학예원은 "팔이 6개인 육비지장은 지장보살이 6도를 구제하는 모습으로, 드물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만다라로 그려진 것은 전례가 없는 작품이다. 일본에, 세계에 단 1장뿐인 그림일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만다라는 비단에 종이를 배접한 견지(絹地)에 그려졌으며 가로 84cm, 세로 134cm. 작풍에서 15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6개의 팔을 가진 6비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주변에 1만 1851분의 작은 지장보살들이 그려졌다.

지장보살은 일반적으로 두 팔을 지닌 승형(僧形)에 가사와 장삼을 수한 모습으로 그려지나 만다라에 묘사된 지장보살은 삭발한 머리를 제외하곤 영락과 천의를 입은 전형적인 보살형의 모습으로 지물은 일반적인 석장과 보주를 들고 있다.

쵸쥬지 측은 오랜시간 동안 방치되어 훼손된 만다라를 복원해 대중에 공개할 것을 발원, 전체 복원 비용에 해당하는 약 100만 엔(한화 약 1천만 원)은 대중들의 보시로 모금할 예정이다. 료도 스님은 "그림에 그려진 수많은 지장보살님들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에게 조금씩 정재를 모아 복원하는 것이 뜻깊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500여년 넘게 조용히 전해온 만다라에 담긴 마음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현재 쵸쥬지에선 만다라 복원을 위해 육비지장 관련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을 통한 모금도 검토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선재동자, 관음보살께 법을 청하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㉔ 고려수월관음도

한국 불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동양의 모나리자'로 일컬어지는, 물에 비친 달과 대나무를 배경으로 반가부좌한 아름다운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림을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라고 하는데, 한국 불화 중에서도 특히 고려 불화를 대표하며 종교미술의 정수라고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고려 불화는 대략 160여 점으로서, 그 중에서 40여 점이 수월관음도일 정도로 고려 시기 불교 신앙에서 수월관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고려수월관음도의 대략적인 화면구성은 재난과 질병을 막아주며 여러 위험에서 구원해 준다는 관음보살이 수정 염주를 손에 쥐고 보타낙가산(補陀洛迦山)의 연못가 바위 위에 한쪽 다리를 들어 반대쪽 다리의 무릎 위에 올린 반가좌의 자세로 풀방석(부들자리)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다. 그리고 관음 옆의 바위 위에는 유리 접시 위에 놓인 정병에 버들가지가 꽂혀 있으며, 그 뒤로 구불구불한 기괴한 암석과 두 그루의 대나무가 표현되어 있다. 화면의 하단에는 선재동자(善財童子)가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한 채 간절한 구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 화면 하단에 선재동자 이외에도 용왕 및 반인반수의 괴수가 산호, 침향 등의 공양물을 바치러 오는 장면이 추가되는 작품들도 있다.

수월관음도의 기원에 관해서 살펴보면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에 8세기 중후반 당대(唐代)의 궁정화가 주방(周昉)이 창안한 것으로, 그가 그렸던 수월관음은 둥근 원 안에 앉아 있으며 대나무와 함께 묘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최초 수월관음도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현존하는 수월관음도 중 기년명이 명확한 가장 이른 사례는 오대(五代)시기 943년에 돈황(敦煌)지역에서 제작된 비단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물가의 암석 위에 반가부좌 형태로 앉은 관음이 오른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왼손에는 약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관음의 뒤로 커다란 달이 물 위에 떠 있으며, 세 그루의 대나무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더불어 화면의 왼쪽에 '수월관음보살(水月觀音菩薩)'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반가좌한 관음과 대나무 세 그루가 표현되는 화면구성은 주방이 수월관음을 창안하였던 8세기 중후반부터 성립되어 10세기 경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송원대(宋元代)의 수월관음은 비교적 수량이 많은데, 쌍룡(雙龍) 만불사(萬佛寺)와 사천(四川) 대족(大足)석굴, 안서(安西) 유림굴(榆林窟)에서 공양자와 선재동자가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11세기 경부터 수월관음도에 우리에게 익숙한 공양자나 선재동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금대(金代)에 조성된 섬서(陝西) 석홍사(石泓寺)의 수월관음상 하단에는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 손오공 · 저팔계 · 사오정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후 중국의 수월관음은 청대(淸代)까지 여러 이야기와 많은 등장인물들이 더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제작되었다.

'한국불화의 원류를 찾아서'-24.
고려불화 대표하는 '수월관음도'
中 주방 창안… 관음·竹 그려져
宋代 이후 공양자·서유기 다양화
선재동자, 韓수월관음도만 전해

한편 우리나라에 언제 어떠한 모습의 수월관음이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존하는 40여 개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모두 채색 불화이며, 공양자는 묘사되지 않기도 하지만 한 두 작품을 제외하고 반드시 관음에게 지식을 청하는 선재동자가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중국처럼 다양한 도상의 수월관음이 아닌 상단의 수월관음과 하단의 선재동자가 화면을 구성하는 단일한 도상이 제작되어 유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음 · 기암괴석 · 대나무 조합의 기본 구성에서 시작하여 선재동자까지 어떠한 이유로 만나서 불교미술 최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고려 수월관음도를 탄생시켰을까?

먼저 관음보살 구제와 구복 신앙의 뿌리는 〈법화경(法華經)〉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중략)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림의 배경이 되는 달빛이 비치는 물가와 풀방석, 가부좌한 관음, 선재동자의 근거는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엄경〉의 마지막 품을 이루고 있는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善知識)을 두루 만나면서 도를 추구하는 이야기로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재미있고 쉽게 서술하였기에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송대부터 '화엄삼매회지식도'라는 제목으로 비로자나와 53명의 선지식을 53개의 칸으로 세분화하여 그렸으며, 일본에까지 전해져 도다이지(東大寺) 등에 현존하고 있다.

선재동자가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 관음보살과의 정황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져서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쓸려서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석 위에서 가부하고 앉았고 한량없는 보살들도 보석 위에 앉아서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관자재보살이 대자대비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계시었다. 이때 선재동자는 관자재보살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여쭈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데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또한 '수월관음'이라는 명칭은 관음보살이 물에 비친 달을 본다는 뜻으로, 역시 입법계품에 '수월중(水月中)'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수월관음도의 신앙과 도상을 정리해 보면,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의 관음의 대비심과 〈화엄경〉 입법계품의 물에 비친 달, 배경이 되는 물가, 풀방석, 가부좌한 관음, 선재동자가 조화롭게 결합되었다고 하겠다. 즉 고려 수월관음도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법화경〉과 〈화엄경〉을 경전적 배경으로 삼아, 고려 최고의 불화승들의 역량이 더하여 탄생된 불교 최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고려 수월관음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소장의 '수월관음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은 세로 430cm, 가로 254cm 크기로 이음새가 없는 한 폭의 비단에 제작된 대형불화로서, 한중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 이 수월관음도는 1310년 고려 충선왕(忠宣王) 시기에 숙비(叔妃) 김씨의 발원으로 8명의 화원이 조성한 것으로서, 1391년 사가현 카라츠시 가가미진자에 전해졌다.

화면의 구도는 일반적인 고려수월관음과 동일하며, 특히 대형의 작품이어서 세부묘사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듯이 관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치고 있는 투명한 비단과 섬세한 귀갑문 · 연화문 · 보상화문 등의 무늬가 실제의 비단천을 보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로 생생하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수월관음도에 감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고려 화원들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적인 심미안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끝〉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아래에는 수월관음에게 법을 청하는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다. 이 같이 수월관음과 선재동자가 배치된 도상은 한국에만 유일 도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유권자여, '팬' 아닌 '주인'이 되라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㉔ 한국정치 방향



그림 · 박구원

각 나라마다 열광하는 스포츠가 있다. 미국은 미식축구, 야구, 농구에 열광하지만 축구에는 열광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럽은 축구에 열광하지만 미식축구와 야구는 거의 하지를 않는다. 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냈는데 뉴질랜드인은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이다. 통계에 의하면 국민 중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이다.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거친 스포츠를 좋아한다. 뉴질랜드가 열광하는 스포츠는 축구도, 야구도, 미식축구도 아닌 럭비다.

럭비는 워낙 보편화된 운동이 아니다보니 영연방 국가끼리만 한다. 럭비가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탓으로 주로 영연방 국가에 보급되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럭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영연방 국가가 럭비에 열광한다. 럭비도 축구처럼 월드컵 같은 리그전이 있는데 영연방 국가가 참가하여 경기를 한다.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마오리족이다. 마오리족은 체격이 좋고 운동에 뛰어나서 유명한 럭비 선수가 많다. 마오리족이어도 럭비 선수이면 전국적인 인기도를 누린다. 내가 1년간 머물렀던 오클랜드 대학의 어떤 교수는 뉴질랜드가 워낙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보니 지적인 측면에는 관심이 없다며 한탄했다. 뉴질랜드는 매년 전국의 고등학교가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성적의 순위를 발표한다. 뉴질랜드는 아직도 영국의 엄격한 교육시스템을 이어 받아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남녀 공학의 세 가지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다. 1등부터 10등까지에 포함된 고등학교 중 9개 고등학교가 여자고등학교다. 게다가 나머지 하나 마저도 남자고등학교가 아니라 남녀공학이다. 그 오클랜드 대학 교수는 공부는 여자가 하고 남자는 운동이나 한다는 식으로 한탄했다.

이른바 '럭비 월드컵'이 치러지는 기간에는 온 뉴질랜드가 들썩인다.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온 국민이 열광했듯이 뉴질랜드 국민도 마찬가지다. 뉴질랜드가 결승에 오르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긴장감이 돌기도 한다. 결승에서 승리하면 온 국민이 길로 뛰쳐나와 축제를 벌린다. 패배하면 전국민 우울할 정도로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정치는 여러가지 면에서 스포츠 경기와 유사하다. 국민은 양편으로 나뉘어 전쟁 같은 응원을 한다. 내 편 정당이 상대편 정당을 박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짜뉴스를 동원해서라도 이기기를 바란다.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가보다는 상대를 꺾어야 나라가 좋아진다는 생각이다. 내편 정당이 이기면 의기양양하고 지면 침울해진다. 더구나 지역정당으로 나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긴 지역과 진 지역의 선거 후 집단 정서는 학문적 연구 대상이다.

선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좋은가를 알아보는 기회가 아니다. 한명이라도 내편 정당이 더 많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당선시켜야 하는 전쟁이다.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을 이끌어내려는 토론의 기회도 아니다. 가짜뉴스라도 동원해서 상대방 정당을 묵사발 만들어야 하는 말싸움의 전쟁터에 불과하다. 내편을 돕는 언론이 총동원되어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는게 선거다. 정치인이 내 뱉는 혐오와 증오의 말에 동조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싸움은 유리해진다.

정치판의 싸움이 항상 양쪽으로 갈리지는 않는다. 정치의 영역에는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부동층이 존재하며 선거란 부동층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부동층을 스윙보터(swing voter)라고 하는데 사안에 따라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공화당을 지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스윙이라고 표현한다. 부동층이 되어야 불교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중도사상에 대한 오해이다. 하지만 단 한번도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나 단 한 번도 공화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공화당 지지자는 분명 극단이지 중도는 아니다.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 아집, 독선, 슬픔, 기쁨, 분노가 없이 정치와 정책을 보고 판단한다면 중도다. 정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이 중도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떠난 상태에서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게 중도다. 평균과 중간을 항상 고집한다면 그것 또한 극단이다. 중도란 연기법의 실상을 바로 볼 때 가능하다.

정치판의 어떤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빔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투르 왕을 나쁜 왕이고 그의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 하신다. 국민은 어차피 둘로 나뉘게 되어 있다.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과 독재를 지지하는 국민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지만 산업단지개발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복지예산을 증액할 것인지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은 아니다. 하지만 얼핏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도 깊이 심사숙고해보면 선과 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른 요인과 조건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정치 현상은 선과 악의 싸움과 완전히 절연된 경우는 없다.

> **정치 애착과 일체감의 발로**
> **스포츠처럼 대리싸움 변질**
> **중도적 유권층 '스윙 보터'**
> **일방지지층보다 합리성 도움**

왜 우리는 서로 분열되어 싸울까? 그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증일아함경에서 중생이란 모두 스스로 집단을 이루고 집단에 소속되어 집단을 따른다고 설하신다. 인간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뉘어도 마치 서로 많이 다른 것처럼 싸운다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이미 살펴 보았다. 하물며 무작위로 나눈게 아니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인종이 다르다면, 출신 지역이 다르다면 충분히 싸울만한 이유가 된다. 만약 싸우지 않는 두 집단이 있다면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해서일 수도 있다. 겉으로는 싸움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싸움인 경우도 있다.

무작위로 나뉜 집단도 소속원에게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게 만든다. 무작위로 나뉜게 아닌 집단은 소속원에게 더욱 강한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집단의 소속원은 집단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을 수시로 확인한다. 정체성은 다른 집단과 싸울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당과 지지자는 집단을 이룬다. 내가 사랑하는 정당이 미워하는 정당과 싸움을 벌일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정당에 깊은 애착을 느낀다. 애착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이어진다.

부처님은 애착을 알면 욕망을 알게 된다고 하셨다. 애착으로부터 많은 욕망이 이어진다. 먼저 우리는 같은 편으로부터 여러가지 이익을 제공받는다. 정부의 직책을 제공 받고, 특혜를 받고, 쉽게 로비할 수 있어서 정부 세금을 내 돈처럼 갖다 쓸 수 있다. 그뿐인가? 심리적 이익도 수반된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 편, 우리 편이 정권을 잡으면 나도 덩달아 뿌듯해진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흑인이 뿌듯해한 것처럼 말이다. 지역주의로 갈라진 우리나라의 경우, 내 지역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괜히 으쓱해진다. 뿌듯한 감정은 때로는 우월주의와 결합된다. 백인이 흑인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이태리 북부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듯이 우리나라 지역주의에도 우월감이 개입되어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은 나와 동일시 된다. 나의 감정이 이입되어 대통령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준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 자기 자식이 성공하듯 자랑스러워진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지지자는 치욕감에 떨게 된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감옥에 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떴을 때 지지자는 슬퍼하고 분노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감옥에 갈 때 자신이 감옥에 간 것처럼 치를 떠는 지지자도 있다. 이러한 감정 이입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슬픔, 분노, 모욕감, 원한, 복수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정치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자신의 결론을 합리화할 논리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논리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탄하고 분노한다. 어차피 정치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면 정치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실지견의 능력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우리는 과연 잘 싸우고 있는걸까? 정말 이기고 싶다면 여실지견해야 한다.

싸움의 고수한테 들은 재미 있는 이야기다. 대부분 싸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흥분하여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잘 보지 못한단다. 고수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인다고 한다. 정말 상대 정치인과 정당을 물리치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슬픔, 분노, 모욕감, 원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실지견의 능력이 필요하다. 정치가 싸움이 되어버린 현실은 한탄할 일이지만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동물이다. 싸움을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 우리는 과연 싸움을 경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시장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시장 효율성을 실현하려고 한다. 정치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이다. 지지자는 심리적 이익, 경제적 이익, 기타 이익에 좌우되어 휘둘린다. 불교는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본성이 아니라고 본다. 인간에게는 중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수행이란 연기법의 중도 실상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다. 진정 불교가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종교라면 불자부터 정치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타고난 본성으로 인하여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치닫는다. 정치판의 싸움을 좋은 세상을 위한 경쟁으로 바꾸려면 인간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불교는 인간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해탈을 추구한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는 조금씩 여실지견의 역량을 가진다. 정치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때마다 우리는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도 세상도 변해야 한다. 〈끝〉

〈고려대 명예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불교로 '인간혁명' 꿈꾼 선각자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㉔ 근현대 선지식 태허 선사



중국 근현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태허 스님이 불교 3대혁명을 주장했던 상해 정안사 도량의 모습. 상해 중심 시가지에 위치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은 경쟁적으로 아시아를 식민지화했다. 중국도 이런 고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중국 안팎으로 아편전쟁(1839~1842)을 비롯해 태평천국의 난(1851~1864) · 청일전쟁(1894~1895) · 신해혁명(1911~1912) 등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서 1922년 군벌타도를 목적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1차 국공합작,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2차 국공합작이 있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에 이어 국민당과 공산당이 4년 여 간에 걸친 국공내전에서 결국 공산당의 승리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중국 근대에 반란이 발생하거나 혁명세력이 생겨나면, 이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유 · 불 · 도라고 생각했다. 불교 또한 미신으로 치부되어 훼불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불교계를 패닉에 빠뜨린 사건이 '묘산흥학(廟產興學)' 이다. 묘산흥학을 최초로 제기했던 사람은 1898년 장지동이다. 그는 '중국의 학(學)을 체(體)로 하고, 서양의 학(學)을 용(用)으로 한다.' 는 기본방침아래, 사찰 재산의 70%를 몰수해 학교교육에 충당하자는 것이다. 묘산흥학 운동은 신해혁명(1911년) 이후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로도 불교사찰 재산 몰수에 관해 다양한 양상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런 풍랑 속에서도 선종에서는 조동종과 임제종 법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토종의 인광(印光, 1862~1940), 천태종의 제한(諦閑, 1858~1932) 등 걸출한 승려들이 배출되었다. 한편 승려들 중에는 개인의 수행보다는 사회의 어두운 곳과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사업을 전개했다.

이 시대에 재가자 활약이 컸는데, 양문회(1837~1911) · 강유위(1858~1927) · 담사동(1865~1898) · 양계초(1873~1929) · 구양경무(1871~1943) · 여징(1896~1989) 등에 의해 불교서적 및 경전이 출판되었고, 화엄 · 유식 · 정토 · 천태학 등이 발전되었다.

근현대 선자들 화두 '염불시수'

근현대 중국 선사들의 화두는 '염불시수(念佛是誰)' 이다. 물론 당나라 말기 영명 연수로부터 선정일치(禪淨一致)가 정립되어 염불선이 내려오고 있었고, 명 · 청대에도 선의 주류는 염불과 선이었다. 당시 염불시수를 참구해 정각을 이룬 선사에는 법인(法忍, 1844~1905) · 경안(敬安, 1851~1912) · 대정(大定, 1823~1906) · 응자(應慈, 1873~1965) · 허운(1840~1959) · 야개 등이다. 야개와 원영의 경우만 보자.

야개(冶開, 1852~1922)가 선방에서 수행하던 중에 유나가 향판으로 그를 내리쳤는데, 그 순간 선사는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이 선사에게 수학한 제자가 있는데, 근현대 중국불교를 구축한 원영이다.

원영(圓瑛, 1878~1953)은 야개 문하에서 6년간 참선하였다. 원영은 사회운동을 했으며, '천태+화엄+선' 의 일치를 근본으로 하였다. 원영은 선과 염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출가하여 처음에는 참선을 배우고 함께 염불 정토를 닦았는데, 선정일치를 깊이 알았다"고 서술하였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염불법문을 말한 뜻은 6근을 거두어 청정한 염(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아미타불 명호를 칭념함으로서 경계가 고요하며 마음이 공한 경지에 이르면,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 들어가서 마침내 자성미타를 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원영은 특히 "염불은 아가타약(阿伽陀药)과 같아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생사를 뛰어넘어 속히 깨달음에 이르는 원돈법문이다. 다만 사람들이 염불을 생활화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 일념으로 염불하면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고 하여 염불을 돈오법문에 비견하였다.

인간혁명 꿈꾸었던 태허 선사

태허(太虛, 1889~1947)는 경안(敬安, 1851~1912)의 제자로서 평생 동안 불교개혁과 계몽에 앞장섰던 선각자이다. 태허는 홍일 · 인광 · 허운 스님과 함께 중국 근현대 4대 고승 중 한 명으로 꼽는다.

태허는 절강성 숭덕현 출신으로 16세에 신통력을 얻기 위해 강소성 소주의 소구화사에 출가하였다. 천동사 경안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3년간 여러 경전을 간경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일체법은 얻을 수 없고, 열반 이외 어떤 법도 역시 얻을 수 없다' 는 구절에서 텅 빈 느낌이 들며 한 소식 깨달았다. 태허는 불학을 혜학(慧學)이라고 생각하고, 경교(經敎)를 중시하며, 선(禪)을 근본으로 삼았다. 선사 또한 염불시수 화두를 참구하였다.

中 근현대 4대 고승 중의 한명
스승 경운의 불교 운동에 감화
'불교중흥'을 평생 사업에 매진
승단 · 사찰재산 3대 개혁추진
각지 불학원을 설립, 후학양성

태허의 스승 경안 스님은 시문학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아육왕사 부처님 사리탑에 참배하고 손가락 8개를 소지공양하여 '팔지두타(八指頭陀)' 라고 불렸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했으며, 불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태허는 불교운동을 하다가 입적한 모습을 보고, 무력한 불교계를 탄식하며, 스승이 미처 다하지 못한 불교를 부흥시키겠다는 맹세를 하였다. 이런 점은 제자 인순(印順, 1906~2005)이 스승 태허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태허 스님께서는 담사동(譚嗣同)의 〈인학(仁學)〉을 읽고 너무 아껴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하다. "글(이론)만 읽는 선비여서는 안된다. 글 이전에 현실적으로 몸으로 진실을 느껴야 한다."

즉, 인(仁)은 신체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과 부딪히는 속에서 배움(學)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담사동의 사상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생과 함께 하는 동사(同事)라고 볼 수 있다. 태허는 담사동으로부터 승려의 사회 현실 참여에 눈을 뜨게 되었다.

태허는 "'나' 라는 망상에서 깨어나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만유제법(萬有諸法)은 인연으로 통하고 공성(空性)은 둘이 아니며, 서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뤄져 있으니 이 땅에서 극락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이런 불교관을 품고 있던 터라 태허는 불교적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태허는 ①현실의 인생을 중시한다 ② 과학적 증거에 기댄다 ③ 조직을 통해 대중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곧 불학으로 현실을 개혁하고 현실을 구하겠다는 서원인데, 인생불학(人生佛學) · 실증불학(實證佛學) · 과학불학 · 인간정토 이념에 바탕을 두고, 불교혁신운동에 앞장섰던 것이다.

1913년 태허는 상해 정안사(精安寺)에서 불교의 3대 혁명을 외치며 불교혁명을 주장하였다. 3대 혁명이란 불교 교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교의개혁(教義改革)' · 승단을 개혁하고 시정하는 '교제개혁(教制改革)' · 불교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교산개혁(教產改革)' 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태허는 "정사에 관심을 갖되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다"며 승려 본연의 자세를 고수했다.

그런데 당시 보수적인 승려들은 태허의 혁명운동을 반대했다. 결국 태허의 혁명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마음고생만 하게 되어 보타산으로 들어가 무문관 수행을 하였다.

3년 후, 태허는 상해에서 각사(覺社)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불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다. 선사는 각사에서 불교 수행을 연구하고, '각군(覺群)' 이라는 주간지를 창간하였다. 제자에게 맡겼는데, 대만 불광사의 성운(星雲, 1927~)도 두어 차례 편집에 참가하였다. 〈각사총서(覺社叢書)〉를 창간하여 〈정리승가제도론(整理僧家制度論)〉을 발표하였다. 태허는 〈각사총서〉를 〈해조음(海潮音)〉으로 바꿔 창간하고 매월 발행했는데, 이 잡지는 지금도 대만에서 계속 발행되고 있다.

태허는 승려 교육을 위해 호북성 무창불학원(1922년) · 복건성 민남불학원(1925년) · 사천성 한장교리원(1932년) · 서안 빨리삼장원 · 북경 불교연구원을 설립하였다. 불학원에서는 종파를 초월해 승려들을 교육했는데, 근대불교를 이끈 승려들이 대부분 태허가 설립한 불학원 출신들이다. 한편 1929년에 원영 스님과 함께 중국불교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세계불교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스님은 상해 옥불사에서 68세로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정리승가제도론(整理僧伽制度論)〉 〈석신승(釋新僧)〉 〈신유식론(新唯識論)〉 〈법리유식학(法理唯識學)〉 〈진현실론(眞現實論)〉 등이 있다.

후대 불교사에 남긴 태허

태허는 중국불교를 개혁하여 중국을 정토화하고, 세계를 불교화하고자 노력했다. 태허는 근대불교를 현대화의 반석위에 올려놓은 선지식으로 평가받는다. 1949년 중국이 인민공화국이 되고나서 불교계가 준비한 농선병행(農禪竝行) · 장엄국토(莊嚴國土) · 이락유정(利樂有情) 이념은 태허의 사상인 인간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인간불교 운동은 제자인 인순(仁順, 1906~2005)을 거쳐 현재 불광사의 성운으로 이어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운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내용을 남겼다.

"글을 쓰게 된 인연이나 불교 포교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때, 나는 태허스님의 인간 불교의 이념을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인간불교는 시종일관 내가 지향하고 실천해 나가는 길이 되었다."

또한 성운은 태허가 주장했던 '3대 혁명' 을 지지하며, 사회와 중생에 관심은 갖되 정계 진출은 하지 않았다. 즉 성운은 태허를 본받아 불교도들이 국제적인 공생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되 불제자로서 권력을 갖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또한 대만의 '관음보살의 화현' 이라 일컫는 자제공덕회 증엄(證嚴, 1937~)도 태허의 영향을 받았다. 증엄은 〈태허대사 전집〉을 읽고 흠모해 존경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증엄은 태허의 제자인 인순을 찾아가 스승 제자 인연을 맺었다. 〈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마이크가 1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도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몇배로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전화를 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 마이크 성능 비교 값 한잔!

▣ 꼭 시설을 원하시는 분은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1.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지만 동시 사용은 2개
2. 헤드셋 사용 염불시 자유로운 두 손으로 목탁 요령, 북 사용

시중에 없음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으로 가격 ₩58만원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냇물도 찻물로 사용…품평 식견도 탁월



박동춘의
고려茶문화, 그 아름다움
㉔ 고려시대 찻물

고려시대 탕법(湯法)인 점다(點茶:고려 시대 차를 다리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에 적합한 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품천(品泉)은 당나라 육우 또한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스무 곳에 찻물을 명명할 만큼 다사(茶事)의 핵심요소이다. 이뿐 아니라 찻물을 끓이는 일도 점다의 중요한 변수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물을 잘 선택했다 할지라도 잘 끓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묘한 차의 세계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에는 전기포트를 사용하므로 실제 센 불과 약한 불이 어우러진 탄력이 있는 탕수(湯水)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요구하는 연유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 시대는 차와 다구, 그리고 차를 애호했던 계층의 문화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기다. 그러므로 차를 향유하는 계층의 찻물에 대한 식견이 높았다. 특히 차 문화를 주도했던 수행승과 귀족, 관료 문인들은 품천에도 일가를 이룬 부류이지만 아쉽게도 이들이 남긴 품천(品泉)에 관한 자료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13세기 김극기의 〈박금천(薄金川)〉은 평양부 북쪽 9리 즈음에 흐르는 냇물이 찻물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정황을 나타낸 자료가 있고, 그 밖에도 〈유사척록(遺事摭錄)〉에 이행(李行 1352~1432)이 찻물의 품평에 일가견이 있어 우리나라 물을 품평한 자료가 남아 있을 뿐이다.

성곡 성석연은 기우자 이 공과 서로 사이가 좋았다. 이 공은 성 남쪽에 살았고 상곡은 산 서쪽에 살았는데, 서로의 거리가 겨우 5리 쯤 되었다. 혹은 서로 찾아다니며 노닐기도 하고 혹은 서로 시로써 창수하였다. 상곡이 동산 가운데 조그마한 집을 짓고 '위생당'이라 불렀는데, 매번 하인 아이들을 모아 약 만드는 일을 일삼았다.…한번은 이 공이 '위생당'에 이르니 상곡이 공도 공에게 창문 밖에서 차를 끓여 오게 하였는데, 찻물이 넘쳐 다른 물을 부었다. 이 공이 차를 맛보고 말하기를 "이 차에는 두 가지 물을 섞었구나."라고 하였다. 이 공은 물맛을 잘 가려내었는데, 충주 달천의 물이 제일이고, 한강 가운데로 흐르는 우중수가 둘째이며 속리산 삼타수가 셋째라고 하였다. 달천은 대개 금강산에서 흘러온 것이다. 용재 이종준의 총화에 "평해 월송정은 승지이다. 이 공이 매번 달밤에 와서 소를 타고 송정에서 노닐었다. 유배를 갔는데, 집이 바로 백암산 아래라서 백암이라 불렀다. 소요로 세상을 잊고 술과 시를 지으며 스스로 즐거워했다. 태종이 태자로 있을 때부터 좋아하여 자주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成桑谷石珚與騎牛子李公相善°公居城南°桑谷居山西°相距纔五里許°或杖屨相從°或以詩相酬唱°桑谷於園中搆小齋°名曰衛生堂°每聚家僮°曰以劑藥爲事…中略…公嘗到堂°桑谷令恭度公烹茶於牕外°茶水溢°更添他水°公嘗之曰°此茶必添二生水°公能辨水味°以忠州達川水爲第一°漢江中之牛重水爲第二°俗離山之三陀水爲第三°達川蓋自金剛山出來者也°慵齋李宗準叢話 平海越松亭°勝地也°李公行每於月夜°騎牛遊賞於松亭°及被謫°仍家白巖山下°號白巖°逍遙忘世°詩酒自娛°太宗以潛邸之好°屢召不起)

> 수준 높은 차문화 향유
> 찻물에 대한 식견 높아
> 우리나라 냇물 품평해
> 순위 매긴 자료도 존재

위 인용문은 원래 성현의 〈용재총화〉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행의 우리나라 물에 대해 평가한 것이 드러난다. 특히 이행은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인물이다. 그가 1371년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 수찬(修撰)을 역임했고, 우왕 때 탐라를 건너가 성주였던 고신걸(高臣傑)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옴으로써 이때부터 탐라가 고려에 귀순한 것인데, 당시의 그의 벼슬은 전의부정(典醫副正)이었다. 1390년 이색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고려가 멸망한 후 예천동(醴泉洞)에 숨어 살며 원천석(元天錫, 1330~?)과 길재(吉再, 1353~1419)와 깊이 교유했다.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와 태종이 그를 여러 차례 회유하였지만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고려 말 문인의 물에 대한 식견을 드러낸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글 중에 언급된 성곡 성석연(桑谷成石珚, ?~1414)은 성현(成俔 1439~1504)의 증조부이며 공도 공은 성석연의 아들 성엄(成揜 1375~1434)이다. 공도는 성엄(成揜)의 시호다. 그러므로 성현은 자신의 증조부와 할아버지와 교유했던 기우자 이행의 차와 관련된 자료를 수습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성석연이 아들 성엄에게 차를 다려 오라 했는데, 찻물이 넘치자 다른 물을 첨가한 것. 이를 정확하게 알아차린 것은 이행이었다. 따라서 그는 차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로, 고려 말 관료 문인의 깊이 있는 수준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행은 우리나라의 찻물을 규정하면서 "충주 달천의 물이 제일이고, 한강 가운데로 흐르는 우중수가 둘째이며 속리산 삼타수가 셋째라고 하였다. 달천은 대개 금강산에서 흘러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유일한 품천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고려 전반의 차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였으며, 적어도 차의 애호층이었던 문인이 어떤 수준의 차를 즐겼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셈이다. 특히 성석연이 지은 위생당은 고려 시대 다정의 규모를 드러낸 것인데, 산 중턱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에서 당시 다정은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에 소략하게 지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행은 정치적인 혼란기를 지내며 차를 즐기며 탁세를 견딘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기우선생문집(騎牛先生文集)〉에는 '제성상곡석인위생당(題成桑谷石珚衛生堂)'이라는 글이 눈에 띈다. 이는 성석연이 지은 위생당 분위기를 잘 나타낸 시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새로 지은 소쇄한 위생당 백판이 평안하고(蕭灑新堂白板平)
글씨와 그림, 책, 꽃, 대나무엔 깊은 정이 가누나(圖書花竹有深情)
담장머리 연록 빛 세 그루 회화나무엔(墻頭軟綠三槐樹)
한 쌍의 꾀꼬리 소리 듣기 좋아라(好箇黃鸝一兩聲)

윗글은 위생당이 소쇄한 분위기였고 도서와 꽃 그리고 대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행은 깊은 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었던 연유는 무엇일까. 회화나무는 조정 뜰에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고 삼공(三公)이 이것을 향해 앉았다는 고사가 있다. 이로부터 삼괴(三槐)는 높은 벼슬을 의미한다.







이규보의 〈남행일기〉에 원효방 바위틈에 솟은 물로 차를 달인 기록이 전한다. 사진 위는 부안군 변사에 위치한 내소사 원효방 전경, 아래는 일화가 담긴 〈남행일기〉.

한편 찻물에 대한 기록으론 〈삼국유사〉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에도 나온다. 바로 신라의 정신태자가 보질도가 그 아우 효명태자와 오대산에 들어가 숨었는데, 매일 이른 아침에 우통수를 길어다 일만 진신 문수보살에 공양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찻물에 대해 언급으로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그리고 다촌(茶村)에 찻물이 있었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道寺舍利袈裟事跡略錄)〉이 있다. 물론 이규보(1168~1241)의 〈남행일기(南行日記)〉에도 찻물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일기는 그가 1200년 전주목사록겸장서기로 임명되어 1201년경까지를 기록한 일기 형식의 글이다. 그가 부안군 변산에 위치한 내소사를 방문하여 원효방을 찾았던 정황을 썼는데, 원효 스님이 원효방에서 수행할 때 사포가 시봉하면서 차를 올렸다는 고사를 인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날 부령 현령(扶寧縣令) 이군(李君) 및 다른 손님 6~7인과 더불어 원효방(元曉房)에 이르렀다. 높이가 수십 층이나 되는 나무 사다리가 있어서 발을 후들후들 떨며 찬찬히 올라갔는데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속어에 이른바 '사포성인(蛇包聖人)'이란 이가 옛날 머물던 곳이다. 원효(元曉)가 와서 살자 사포(蛇包)가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여 효공(曉公)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딱하던 중, 이 물이 바위틈에서 갑자기 솟아났는데 맛이 매우 달아 젖과 같으므로 늘 차를 달였다 한다. 원효방은 겨우 8척쯤 되는데, 한 늙은 중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삽살개 눈썹과 다해어진 누비옷에 도모(道貌)가 고고(高古)하였다.(明日°與扶寧縣宰李君及餘客六七人至元曉房…中略…傍有一庵°俗語所云蛇包聖人所昔住也°以元曉來居故°蛇包亦來侍°欲試茶進曉公°病無泉水°此水從巖竇忽湧出°味極甘如乳°因嘗點茶也°元曉房才八尺°有一老闍梨居之°庞眉破衲°道貌高古)

윗글은 〈동국이상국전집〉권23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가 1201년 8월 19일 소래사를 갔다가 다음날인 8월 20일 원효방에 올랐다가 원효의 고사를 인용한 내용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찻물은 맛이 달아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사포의 성심으로 물이 솟은 것이지만 찻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찻물이 달고 시원하며 잡맛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찻물의 기준이라는 점이다. 〈끝〉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한꺼번에 다 놓아버려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㊼ 타성

"대덕들이여! 그대들이 바랑과 똥자루인 몸뚱이를 짊어지고 옆길로 내달리며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니 지금 이렇게 내달리며 구하는 그것이 누구인지 아는가? 거침없이 활발하게 돌아다니지만 뿌리도 줄기도 없느니라. 손에 쥐어 모으려 해도 모아지지 않고 떨어 흩으려 해도 흩어지지 않느니라. 구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어 신령스러운 소리가 귓속에 들어오니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평생 헛수고만 할 뿐이니라.

여러분! 한 찰나에 바로 화장세계에 들어가며, 비로자나국토에 들어가며, 해탈국토에 들어가며, 신통국토에 들어가며, 청정국토에 들어가며, 법계에 들어가며, 예토에도 들어가며 정토에도 들어가며, 범부에도 들어가고 성인에도 들어가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곳곳에 들어가 찾아보아도 어디도 나고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니라. 허깨비나 허공의 꽃을 잡으려 하지 말라. 얻고 잃고 옳고 그름을 한꺼번에 다 놓아버려야 하느니라."

수행의 세계에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타성이 있을 수 있다. 〈임제록〉을 계속 읽어보면 임제가 바로 이점을 비판하면서 경책하고 있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선을 하고, 불법을 구한답시고 상투적인 흉내를 내며 타성에 젖어, 있는 자들을 사정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똥자루인 몸뚱이를 짊어지고 옆길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정체부터 다잡으라고 한다. 공부란 실속 없이 외형적으로 모양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뿌리도 줄기도 없는 정체 모를 수행이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이 장의 이야기도 식심(息心)을 강조한다.

화장세계, 비로자나국토 등 〈화엄경〉 용어를 인용하며 '한 찰나에 바로 들어간다' 는 것은 '입법계품' 의 선재동자가 손가락 한 번 퉁기는 사이에 미륵의 누각문을 열었다는 소식과 같은 뜻으로 사사무애법계 도리를 차용해 쓴 말이다. '한 번 뛰어 바로 여래의 땅에 들어간다(一超直入如來地)' 는 선의 지취를 나타낸 돈오(頓悟)의 이야기다. '돈오' 에 있어서도 돈오점수(頓悟漸修)의 돈오와 돈오돈수(頓悟頓修)의 돈오가 다르다. 규봉은 〈선원제전집도서〉에서 돈오점수의 돈오는 해오(解悟)이며 돈오돈수의 돈오는 증오(證悟)라고 하였다. 굳이 말하자면 이해해서 깨닫는 것과 체험해서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가장 엄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오온(五蘊)이 공(空)하다"고 〈반야심경〉에 말하고 있지만 현실을 의식할 땐 '오온개공' 은 뒷전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고도의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는 현실 존재를 부정하는, 나고 죽는 생사(生死)가 없다고 한다. 임제도 찰나에 화상세계에 들어가면 어디에서도 생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생사가 헛된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허깨비나 허공의 꽃을 잡으려 하지 말라고 또 말했다. 원래 이 말은 승찬의 〈신심명(信心銘)〉에 나오는 말이다. 〈신심명〉의 4구(夢幻空華 何勞把捉 得失是非 一時放却)를 인용하여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조주(趙州)의 '방하착(放下著)' 을 상기시킨다. '방하착' 은 조주와 관계된 유명한 선화(禪話)다. 임제와 조주는 같은 시대를 살았다. 다 같은 조주(曹州) 출신으로 동향인이었다.

엄양존자(嚴陽尊者)라는 사람이 있었다. 소문을 들으니 조주선사에게 가서 뭐든지 물으면 "놓아버리게(放下著)" 이 말 한마디를 해준다고 하였다. 그는 조주선사를 찾아갔다.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은 무엇을 놓아버립니까?" 그 물음에도 조주선사는 또 "놓아버리게." 하였다. 엄양이 다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아버립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게나." "?...."

이 말에 엄양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이후로 '방하착' 은 선가의 유명한 명언이 되어 널리 퍼졌다.

조주가 임제를 찾아간 적도 있었다. 그때 마침 임제가 발을 씻고 있었다. 조주가 물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오?"

"나는 발을 씻고 있는 중이오."

조주가 앞으로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여 듣는 시늉을 했다.

"구정물을 퍼부어야겠군."

조주가 얼른 돌아 나와 버렸다. 임제는 867년에 입적하고 조주는 897년에 입적해 임제보다 30년을 더 살아 120세에 입적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름달 밝은 體 보리심과 같아



세상 속 경전읽기

㊼ 월륜관(月輪觀)

충남 태안의 신두리 해안 사구(砂丘)는 2001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도반들과 자주 해안 사구를 등에 업은 해변 사장(沙場)의 고운 모래를 밟으며 걷기 명상을 한다. 밀썰물의 해조음(海潮音)과 파도와 바람의 어울림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제일 먼저 바람소리가 구분되고, 이윽고 해조음과 파도소리가 구분된다. 그리고 해조음이 밀물소리인지 썰물소리인지도 구분된다. 해조음이 마음을 씻어주니,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한 불보살의 설법 소리에 비유될 만하다.

계절에 따라 바다 가운데로 또는 섬의 산봉우리로 떨어지는 해와, 수시로 변하는 저녁노을 풍경,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 서둘러 사구 뒷산으로 떠오른 창백한 달이 어스름이 짙어갈수록 점점 밝게 빛나는 풍경 속에서 걷기 명상은 계속된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16관법의 초관(初觀)은 서쪽에 곧 지려는 해가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보고, 눈을 감으나 뜨나 그 영상이 분명하도록 하는 일상관(日想觀)이다.

수식관(數息觀)이 널리 행해지는 것은 호흡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상 보는 해나 달을 관(觀)하는 일상관이나 월륜관(月輪觀)도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1269년 송(宋)의 지반(志磐)이 지은 〈불조통기(佛祖統紀)〉는 천태종의 입장에서 석가모니부터 인도와 중국의 고승들의 전기와 계통 등을 서술한 책으로, 여기에 용수(龍樹)보살의 월륜삼매(月輪三昧) 이야기가 나온다.

"용수는 남인도에서 법장[法藏, 佛法]을 (제자인) 가나제바에게 부촉하고 월륜삼매에 들어 매미가 허물을 벗듯 입적하였으니 세수 300세였다. [龍樹。於南天竺以法藏付迦那提婆。入月輪三昧蟬蛻而去。壽三百歲]"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거의 누구나 어릴 때 밤길을 걸으며 달이 자기를 따라오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까지의 차오르는 달은 백월(白月)이라 하고, 보름 이후 그믐까지의 이울어지는 달은 흑월(黑月)이라 한다. 월륜관 수행은 백월관(白月觀)이라고도 하며 백월을 대상으로 한다.

〈보리심론(菩提心論)〉은 중국 당(唐)나라 승려 불공(不空, 705~774)이 한역한 것으로, 용수(龍樹)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논란이 있다. 〈보리심론〉에 월륜관에 대한 내용이 있다.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봄에 그 형상이 월륜과 같으니, 왜 월륜으로 비유하냐하면 이른바 보름달의 둥글고 밝은 체(體)는 보리심과 서로 같기 때문이다. 무릇 월륜에는 열여섯 가지 구분이 있다. 〈중략〉 무릇 달의 그 일분의 밝은 모양[明相]은 합숙(合宿)할 즈음엔 다만 해의 광명이 그 밝은 성품을 빼앗는 까닭에 나타나지 못하나, 나중에 초승달을 처음으로 해서 나날이 점점 더하여 15일에 이르면 원만하여 걸림이 없다."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

월륜관은 달[月輪]에 갖추어진 깨끗함[淸淨] · 서늘함[淸凉] 밝음[光明]의 성질이 자성(自性) 곧 '내 마음의 실체[自心實體]' 와 같으므로, 달을 통해 나를 비롯한 일체중생이 백월과 같은 덕성을 가진 것임[心月]을 깨닫게 하는 관법이다. 초승달 이전의 완전한 어둠 1과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의 15를 합해 16을 백월관(白月觀)의 대상으로 삼아, 가슴 속(또는 머리 위)에 1/16에서 16/16까지 달이 차오르는 모습을 관하고, 16/16인 15일(보름) 만월의 걸림없이 서늘하고 깨끗한 원만광명(圓滿光明)을 관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깨침의 길 8

보리심을 향하여

〈菩提心〉

공부나 운동, 음악을 비롯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 귀의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發心)이라 한다. 불교에서 발심은 깨치겠다는 마음(菩提心)을 내는 것이다. 깨침은 불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고 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공부의 마음을 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보리심을 향한 여정에서도 이러한 예비 과정이 필요하다.

발심을 위한 환경 조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향(指向)과 지양(止揚)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는 곧 새롭게 해야 할 일을 정하고 낡고 오래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먼저 지향해야 할 일은 붓다(佛)와 가르침(法), 승가(僧)에 귀의하는 것이다. 삼보를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고백은 보리심을 향한 첫 걸음이다.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삼귀의(三歸依)가 제일 앞에 놓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흔히 신심(信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붓다의 아들(佛子)이 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신심 없이 행하는 모든 수행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인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쌓인 탐욕(貪)과 성냄(瞋), 어리석음(痴)이라는 세 가지 독한 기운(三毒)을 버리는 일이다.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이런 독 기운을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무겁겠는가. 마땅히 모두 버려야 몸과 마음이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삼독을 버리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습기(習氣)로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필요한 실천이 바로 참회와 발원이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심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실천은 깨침의 길을 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초등학교 3,4학년 시절로 기억된다. 우리 집 화장실엔 유독 귀뚜라미가 많았다. 당시에는 화장실에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초와 성냥을 가지고 가야만 했다. 그런데 성냥을 그어 촛불을 켜면 여기저기서 귀뚜라미가 뛰어다녔고 손으로 잡으면 어느새 다리 한 쪽이 떨어져나가곤 하였다. 그러면 나는 손에 잡힌 귀뚜라미를 촛불에 태우면서 볼 일을 마쳤다.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런 일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귀뚜라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왔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나만의 참회의식을 치렀다. 그것은 촛불을 켠 다음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일이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지만 손가락을 불 위에 올려놓고 떼기를 반복하였다.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뜨거운데, 귀뚜라미는 온몸이 태워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는 아픈 손가락을 움켜쥐고 울고 또 울었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손가락이 너무 아려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귀뚜라미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다. 그 이후 귀뚜라미를 태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원각경〉에는 참회를 하면 마음의 경안(輕安)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동안 쌓인 악업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이다. 마치 어깨 위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108참회를 마치고 명상에 들면 집중이 훨씬 더 잘 되는데, 이 역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함으로써 명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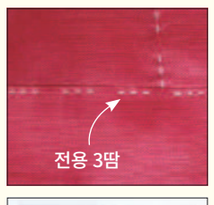
발심을 위해서는 삼귀의를 지향하고 삼독을 지양해야 한다. 참회발원은 이를 실천하는 좋은 수행이다. 이는 곧 보리심을 향한 예비단계라 할 수 있는데,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걷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법이다. 진리를 향한 첫 걸음도 그렇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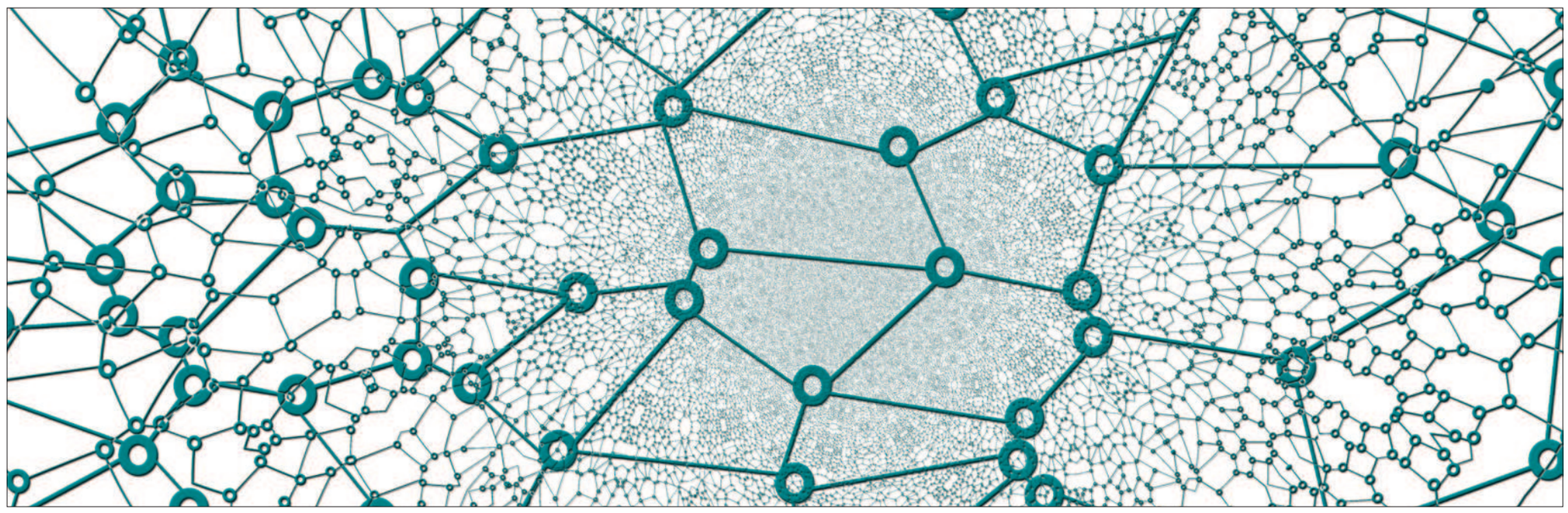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가장 아름다운 행동 '관조'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㉔ 평등과 자비

24-1 분별심에 의한 차별은 파당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무리에겐 무한 관용을 베푸는데 다른 무리에겐 적개심과 광포한 행위까지 일삼는 게 분별심입니다. 이와 달리 평등심은 차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파당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사랑과 존중을 특징으로 합니다. 평등심이 없는 사랑은 애증의 변주곡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한 사랑을 베풀다가 증오와 적개심으로 돌변하니까요. 조건부적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애착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사랑하다가 바램을 충족 못하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 자매도 적이 되고 심지어 원수로 삼기까지 합니다.

평등심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군요. 다른 무리뿐 아니라 적이나 원수마저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없는 한 평등심을 낼 수 없습니다. 평등심은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별심은 칭찬에 환호하고 비난에 분개합니다. 평등한 마음은 내가 없는 마음이니 내 편 네 편을 나누거나 분별하지 않지요. 정치판에 소모적 당쟁이 계속되는 것도 분별심의 극치요 평등심의 결여에 기인합니다.

24-2 종교인이 이교도에게 적의를 숨기지 않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종교이면서도 종파가 다르면 그 조그만 견해 차이로 적이 되곤 합니다. 서로 정통이라고 우기며 싸웁니다. 심지어 이단이나 악의 무리로 규정하는 것을 서슴치 않습니다. 모든 규범 위에 종교적 신념을 놓고 과학마저 부정합니다. 한 번 심어진 종교적 신념은 개인과 집단에게 강력한 세뇌작용으로 집단행동을 감행합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정치와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교란하고 평화를 깨고 있지요. 이러한 정파적 종교적 이기주의를 치료할 처방은 무엇인가요?

24-3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말에 관조가 가장 아름답고 그윽합니다. '비추어본다. 조용히 바라본다' 관조는 주의가 산만하지 않으면서 또한 주의가 고착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밀착하여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떨어져 보는 것도 아닌 집착 없는 순수한 바라봄이 관조입니다. 순수한 바라봄은 선입견 등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조를 강조하는 명상은 모든 차별적 신념을 해체시킵니다. 종교마저 소유물로 여겨 내려놓게 합니다. 종파를 떠나고 평등심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을 구현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은 종교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길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구하는 데 종교의 유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24-4 '나를 믿고 따르면 너를 예뻐하고 재산도 물려주리라. 나를 거역하면 콧물도 없다' 는 마음은 대인의 마음인가요, 소인의 마음인가요? 중생 의식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대립하는 분별 갈등이 기조입니다. 붓다 의식은 모든 분별 시비를 놓고 평등하게 수용하는 대자대비가 기조입니다. 중생은 나와 남의 잘못과 부족함을 크게 보고 힐난하지만 부처는 만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아픔을 껴안습니다. 동체대비요 무연자비입니다. 중생은 이 몸과 마음의 집합체를 견고한 나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 자아상이 있습니다. 붓다는 이러한 자아상이 개념에 불과하고 신념에 불과함을 깨달아 뜬구름처럼 여기라 합니다.

관점의 차이. 이 하나로 온갖 시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점의 차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지요. 그중 내 관점만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지요. 관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기심이 질병입니다. 자신이 하면 모든 게 옳고 자기 것만이 최고라는 독선. 모두 유아의 충족되지 않은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종교를 맹신하는 광신적 행위, 사랑을 외치면서 극렬한 증오와 배척 행위를 타종교에 가하는 것은 분열증 상태입니다. 올바른 지혜로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천국행 열차가 지옥행으로 바뀌고 맙니다. 지혜는 어둠 속의 등불 같아서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선인들은 이러한 연유로 믿음만 강조하면 '눈 없는 발' 이고 지혜만 강조하면 '발 없는 눈' 이라 한 것이지요.

24- 5 이기심은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신념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다는 분리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는 아마도 모태에서 분리되어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난 트라우마에 기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탯줄을 자르면서 분리된 존재인가요? 진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일체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은 자연의 공기와 호흡하며 존재하고 자연으로부터 음식물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루 비춰주는 햇빛과 굳건한 대지가 받쳐주고 있고 푸른 공간이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와도 연결된 존재이고 내면적으로도 연결되어 내 몸 하나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서로 모여 조직과 장기를 구성하고 상호 교류와 연결을 통해 몸을 이루고 있으니, 연합체 또는 집합체라 불러야 진실이지 별개의 단일체라는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도 모여 가족과 마을을 이루고 국가와 세계를 형성하고, 이 지구도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형성하니 모두 한 세상이요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파도와 바다가 그런 것처럼 결코 분리된 바 없지요.

분별심 의한 차별 제거
고착 막고 순수함 지켜
연결공동체로 나아가자

24-6 사랑도 바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부모들의 사랑이 무한하지만 올바로 사랑을 베풀어 아이를 온전히 키워내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비틀린 사랑을 아이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되풀이하면서도 그것을 자각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한 믿음과 해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유익한 믿음에도 전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것입니다. 올바른 지혜는 모든 관점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주의 깊게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싹틉니다. 바른 사유와 성찰(숙고)이 바른 지혜의 전제가 되는군요. 믿음과 지혜는 발과 눈처럼 서로 의지하고 돕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채 맹신자가 되거나 구두선에 머물고 맙니다. 괴로움을 맛보아야 남들의 아픔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음 속 깊은 상처를 자각하고 안아준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의 아픔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나와 아픔을 가진 동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연민이 일어나게 되지요. 평등심은 지혜로부터 나와 자비로 발현되는 군요.

24-7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동등하게 여기는 동체대비의 마음은 내가 먼저 고통의 아픔을 절절히 겪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깨달은 후에 가능합니다. 나의 고통을 해결해야 상대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고통을 불러 일으킨 대상(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는 물거품처럼 꺼지고 대신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이렇게 보편적 사랑을 일깨우고 내면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 되면 생생하고 감동적인 불성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고해에서 끝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에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깨달은 자는 자비롭고 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사랑은 에고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잊고 철길에 뛰어들어 구해내는 마음입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에고에 덮혀서 발현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에고에서 벗어난 무아의 마음은 모든 이웃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자애로움(慈), 고통 받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연민의 마음(悲),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喜), 좋음과 싫음을 떠난 평등심(捨)입니다. 나를 비운 스승의 모습입니다.

24-8 에고에서 벗어난 평등한 자비심은 모든 이들이 나와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깨달음에 의해 일어나는 가슴의 변화입니다. 집착과 투사를 반복하는 에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고 현재 마음을 바라봅니다. 에고의 작용들을 바라보고 '아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5분)

무언가에 계속 매달리는 집착은 우리를 아교풀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관조하는 대신 고집하게 되고 상대를 탓하고 책임을 투사합니다. 집착과 투사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점착성을 묽게 만들어 담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대상에 자유로이 주의를 주고 균등하게 주의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합니다. 석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마음, 산 위에서 멀리멀리 중중첩첩으로 펼쳐지는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소유하려는 집착은 없습니다.

24-9 삶에서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이렇게 관조한다면 이미 명상적인 삶입니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종교, 소수자와 약자, 장애인들을 모두 평등하게 수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등은 획일이나 통제가 아니고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삶을 감상하듯 바라보는 관조가 체화된 셈이지요. 명상적 관조는 상대의 생각을 내 관점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따뜻하게 품는 자비로움을 실현합니다. 결점이 없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점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평등한 자비입니다. 완벽한 나,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업, 완벽한 행복을 바랄 때 불행과 고통이 발생함을 봅니다. 관조는 완벽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불완전 그대로 완벽함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끝〉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불기 2565년(2021) 신축년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애정과 물심양면 도움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불기 2565년(2021)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6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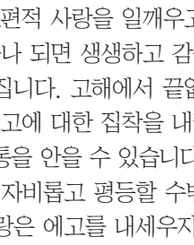
제 목
불기2565년(2021년) 신축년 신년 축하광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jabi2018@naver.com

현대불교신문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공휴일·야간전화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학운사
• 주 지 : 반야심 (속명 : 강금순)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5길 49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1호 | 15 | 전면광고

마땅히 배움의 등불 켜야 하고
스스로 익히면서 지혜를 구하며
더러움에 물들지 말 것이요
촛불 잡고 도의 땅을 자세히 살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유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수강생모집

* 영혼치료 *
* 주역성명학 *
* 최면마스터 *
창원시 성산구 미래운명해법원
010-6586~8289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 • •
010-5736-1835

• • •
행자승 50세 이하, 비구스님 모십니다.
포항 원진사
• • •
010-3517-6099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 • •
010-8721-2198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5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기도의 신

원하는 대로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금전, 입찰, 사업, 영업, 매매, 연속되는 실패와 좌절, 일의 성패, 자녀문제, 원인모를병, 결혼, 불임, 사람능력으로 안되는 일, 많은곳을 다녀보아도 답을 찾지못한 분
귀 대한불교 영남산 백운암 무비 합장
소원성취 기도도량 문의 010-8881-8636
안동시 법흥동 태사길 197-9 ※예약후 방문바랍니다.

고질적 영가 빙의, 산소탈, 무병 등 단 한번에 제거하는 방법 전수합니다!!

• 단 한번의 전수로 터득됩니다(제령)
• 천도제때 활용하면 쉽게 천도됩니다(천도)
•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체 재앙, 질병이 소멸됩니다.
• 저렴한 비용
문의 010-3514-708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1호 | 16 | 전면광고

한 가지 선함은 백 가지 악을 부순다.



부처님 말씀 읽기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토 굴 안 내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대지 230평(임대)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2동. 범종각
●영산강 전망이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보증금 500만, 월 45만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앞마당까지 진입
●대지1500평, 개발예정지4000평, 개발된것1500평, 건물 36평 2동, 8평 1동 콘테이너 8평

010-4752-0459
010-4492-3479

사 찰 안 내

●위치: 김천시 구성소재, 황금동 10분대(교통편)
●법당 약20평, 주방 ·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필)
●대지(도지료 1년 35만원)공동사용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남김천대로변) ●가액 : 4천 5백만원

010-7295-1259

토굴안내

●위치 : 파주시 문산읍
●대지 : 104평
●건물 : 30평(법당, 요사채, 9층탑)
●전세금 : 3천만원
●시설금 : 3천 5백만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경전철 역세권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가액 : 37억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가액 : 3억 1천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법당: 55평 ●요사: 75평
●대지: 500평 ●임야: 4천평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대지 : 405평
●법당 20평, 산신당5평, 요사, 방5개, 건물5개, 화장실2개, 주차공간 많습니다.
●가액 : 2억 8천
●부동산 사절

010-7506-8604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금 1천 5백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땅값만 받습니다
●총 530평, 현재 성업 중
●법당, 요사채, 공양간, 휴게실, 삼층석탑, 석등 등, 부산 울산간 지하철 역과 5분거리
●가액 : 6억 2천만원, 스님 직접

010-2702-0303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활상환가능)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1층 : 93.3725㎡(방음시공)
●법당, 방1, 공양실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권리금 28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세종시 상가안내

◈ 사찰과 교환도 가능합니다 ◈
정부청사앞 인기 급상승자리
7층(E/V有) 분양138.6㎡
가액 6억(절충가)
융자1억8500, 실가액4억
현재 레스토랑 운영중
(보2천-월138임대중 23년만기)
업종변경가능·임대업최적·투자가치최상급
시세대비저렴함·주인 직거래

010-6892-399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공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장(지사명)	연락처
손문철 (대구지사)	T 053-768-8008 H 010-2813-8008
이도경 (부산지사)	T 051-405-9402 H 010-5640-888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T 062-512-5003 H 010-2629-1508
조동제 (전북지사)	T 063-910-8977 H 010-8642-7733
성낙두 (경남지사)	T 051-512-1761 H 010-3860-7008
박영애 (영주지국)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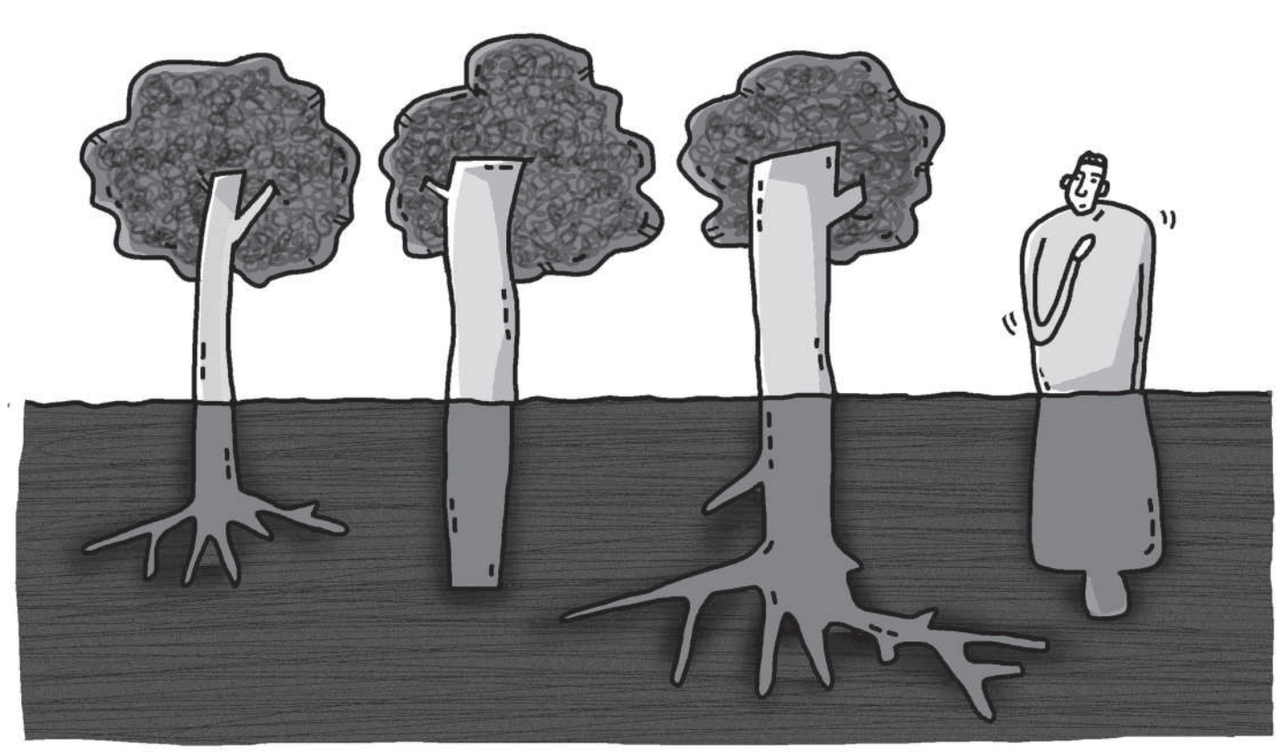
청주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감명 깊습니다. 먼저 누구나가 다 왜 각자 자기 뿌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청주에 오니까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지만 생무지인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나무로 비유를 하죠. 나무들을 보면 모습은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지마는 뿌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나무들의 뿌리가 말입니다. 꽃나무든 버드나무든 소나무든 간에 각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으면 잎새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생명의 근본, 주인공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움죽거리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저 형상을 믿고 말입니다, "형상을 믿고"라는 말은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상대를 믿어서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네들한테 옷을 해 주고 밥을 해 주고 절을 지어 줬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복이라고 그러느냐. 내 나무는 내 뿌리하고 정맥 동맥이 상통하듯 그렇게 돌아갑니다. 뿌리와 나무가 위에서는 공기, 태양,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래에서는 땅의 지기와 철분과 황분과 수분 모두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하는 겁니다. 한쪽만 있어 가지고는 다른 한쪽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게 물질세계의 한쪽만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신세계 50%가 부족하죠. 즉 말하자면 사람이 동맥이 있는데 정맥이 없다거나 정맥은 있는데 동맥이 없다거나 이런다면 아예 사람 구실을 못하죠.

그렇듯이 내가 내 뿌리를 믿어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뿌리를 믿지 않고 내 나무가 울창한 딴 나무를 보고 '아이구, 저 나무가 저렇게 큰데 나에게 에너지를 좀 주었으면…. 나를 잘되게 했으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 나무에서 이 나무로, 이 나무뿌리로 올 수가 없거든요. 이 나무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딴 나무뿌리가 이쪽 나무를 도와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웃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고 싶어 하면 조금 줄지언정, 즉 복은 조금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뜻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몸을 가지고 한 철 나는 건데 그 한 철 동안에 어떻게 해야 옳으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복으로 하는 건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복으로 한다면 주변 동네에서 쌀이나 몇 됫박 얻어먹을 뿐이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고 내 뿌리만이, 내 주인공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식구를 다 밝게 살게 할 수 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불이 켜져서 밝게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면에 생명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생명체들이, 의식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한 부분만 파워가 일어나도 지금 그 집합소는 무너져요. 이게 집합소거든요, 나의 집합소!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는 선장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과거로부터 생긴 건데 그 업식들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뇌다. 의식들이 모두 마구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못 되지요. 그 악업 선업의 업식들이 없었더라면 내 영혼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빠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죠. 알고 보면 그렇게 묘한 법입니다.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나쁘다고만 하지 않는 것이 넓은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점안식을 했습니다. '전자에 점안식을 했는데 왜 점안식을 또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속 눈이 있고 겉 눈이 있습니다. 속 귀가 있고 겉 귀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살던 나의 자성 부(父), 즉 지금 나를 끌고 다니는 부가 있습니다. 그 자성 부와 현실에 사는 자(子)가 둘이 아니게 눈이 밝아져야 속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세계 50%를 왕창 간파하려면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이 언제나 자문자답하면서 생각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하나하나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체 의식들이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 만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것도 혼자 버는 게 아니고, 전체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면서 공심이에요. 그리고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나에게 병고가 있는 게 아니며, 업이 있다고 해도 내게 업이 있는 게 아니다. 붙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공동분담으로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이래야 그게 붙을 자리가 있는데, 쉴 사이 없이 돌아가거든요. 한 찰나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너그럽고 넓고 크게, 좀 더 지혜롭게 마음을 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오던 습과 착에 매달리고 애정, 사랑, 욕심, 악의적인 애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한데 안고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그만 막히는 거죠. 더군다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복으로만 이끌어 가고 따라가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많지만 그 사찰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느니라.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가는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눈 뜬 사람이 장님을 끌고 갈 때는 절대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만이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얘길 했습니다. 부처님 점안식을 함으로써 그 속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체 부처님의 마음과 항상 통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마음으로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통하는 줄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릇도 없고 그래서 받아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일체제불과 우리 스님네들의 마음이 첨보되고 종합돼서 한마음으로 눈, 귀, 발, 손 없는 손, 몸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를,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놓은 겁니다.

꽃에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 아주 이쁘게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휴, 저건 별로야. 보기 싫어.' 하면 그것도 빨리 시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 밝고 귀 뜨게 해서 발 없는 발, 손 없는 손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게끔 스님네들이 환희심을 가지고서 이끌어 주는 그 마음이 저 부처님한테 다 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 부처님을

☞ 18면으로 계속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나빠도 나쁘다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것이 진리예요

☞ 17면에서 계속

둘이 아니게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의 뿌리, 주인공에다 놓고 삼배를 올리든지 일배를 올린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급하면 일배를 올려도 삼배가 되는 것이고 급하지 않으면 삼정례를 그냥 하시고, 칠정례나 팔정례나 삼정례나 일정례나 다 똑같습니다. 급하면 일정례를, 급하지 않으면 칠정례를 해도 되고 삼정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모두가 그래요. 먹고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못 박아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에는 이거를 해 먹기도 하고 저 때에는 저걸 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수도 먹고 어떤 때는 밥도 먹고 어떤 때는 잡곡도 먹고, 고정되게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마음도 역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점안식 얘기 하다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간편하죠. 저 부처님 한마음을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으로 통하게끔 하나로 놓고 절을 하고,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일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친근히 하신다면 아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움죽거리고 행을 하셔서 체험을 하시고 그 맛을 본다면 '부처님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저렇게 베푸시니 이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정말 한나절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는 이 부처님한테 천체를 맡겨 놓았습니다. 또 여기 스님한테는 이끌어 주는 법을 그대로 전달하게끔 해 놓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시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를 겁니다.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힘이 있는 분입니다. 하하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상이지마는 하늘이나 땅이나 천지가 둘이 아니에요. 모습은 하늘이다 땅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아닌 가운데 인간이 있더라. 그 인간이 없으면 천지는 만들어 뭘 합니까? 인간이 없는데 천지가 어찌 있으며 천지가 없는데 인간이 어찌 있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그저 오기만 하면 저 부처님이 여러분의 애고를 불에 태워 줄 겁니다. 하하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사를 지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부처님께서 공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공양 한 그릇을 놓고 공양을 올릴 때에 일체제불과 일체 중생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로 드십니다. 부처님이 한 그릇을 받아서 그 한 그릇을 토해서 다시 중생들에게 내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내리고 받고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기를 "바다를 한 찰나에 삼켰다가 한 찰나에 토해서 여러 중생들한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어서 정맥 동맥이 내려오고 올라가듯이, 공양을 올리는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천지를 다 먹이고도 그 한 그릇은 되남는 겁니다.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사를 지낼 때 찹쌀로 다가 떡 한 그릇을 해서 놓고 향, 다기, 꽃을 놓고서 그냥 지내라 이랬습니다. 그건 왜냐? 영령 혼백들이 들어오면 벌써 혼백을 봅니다.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상에다가 잔뜩 차려 놓곤, 얼마를 내놨는데 얼마치 물건을 샀다는 게 아주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상 차려 놓고는 '이거는 얼마 들여서 사 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렸다.' 하고 알고 있으니까 영령들이 스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고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래서 그 조상 영령들한테 고 한 상 차려 놓은 것만 응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입니까? 음식만 먹으러 다니게.

그러나 이 떡 한 그릇이라는 건 그냥 떡이 아닙니다. 아주 천체가 먹고도 남을 마음의 공양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입니다. 공심으로 공양을 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놓고서 한다면 영령들이 스님의 마음에 착 들어와서 볼 때 아래 위도 터졌고 사방도 터졌고 천체가 내 것 아닌 게 없어요. 혼백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냥 전부, 천상세계가 그냥 전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게 그냥 확 터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할 수밖에요. 그런데 상에다가 몇 알갱이 차려 놓은 고것만 보고서 한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항 속의 붕어를 보면 '어이, 너희들은 나가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지마는 어항에서 사는 고기들은 그 나름대로 또 살아요. 인간은 그거를 답답하게 보지마는 붕어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사람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어항 속에 있는 붕어를 보면서도 자기 생각은 못 합니다. 어항 속의 붕어만 보지요. 하하하…. 자기가 지금 어항 속에서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재하면서 살아야만 하겠기에, 그리고 우리가 어항 속에서 발을 뽑아야 하겠기에, 세세생생에 그 애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으로 됐다가 짐승으로 됐다가 독사로 됐다가 개로 됐다가 돼지로 됐다가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가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그러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과거의 네가 저지른 거니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이 돼서 현실로 팔자 운명애고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모두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놓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흥! 거기서 저지른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다 놨을 때에,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다 놨을 때에 바로 되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재사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지마는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스님! 그냥 상 차리지 않고 재사 지내 주세요." 그러고는 갖다 놓죠.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 본래 그냥 세상이 모두 차려져 있는 건데." 하하하. 아, 세상만사가 다 차려져 있고, 종합 그, 뭔가? 물건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물건이 그냥 뭐, 가질 거 못 가질 거 할 것 없이 다 있고 이 세상천지 우주 세계에 전체 그냥 색색가지로 늘어져 있는데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요? 아주 대대적으로 차린 거죠. 참, 이 대대적으로 차린 거를 알아야 자기의 그 조상 영혼들을 대대적으로 천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할 것 없이 영들이 셋씩 넷씩 들었다고 그러면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그때는 미꾸람지 새끼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마음공부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한 방씩 줬고 마음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팽개쳤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아, 이 맛을 모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들을 잘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덤빈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성을 들이려고 물건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을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줬죠. 다 나눠 줬으니 펄펄 뛰고 길길이 뛸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요. 요만한 플라스틱 대접인가 뭐, 그거에다 담아서 죄 나눠 주고는 "야! 오늘 시식을 참 잘 지냈다!" 아, 이러고 나는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펄펄 뛰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지서에서 순경 불러온다고. 그래서 내 말이 그랬어요. "불러오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시식을 잘 지내서 좋구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소를 하나 얘기를 하나, 염불을 하나 해 주길 하나, 아무것도 없이, 아니, 다 나눠서들 먹어 치워 버리고선 이러니 이런 땡땡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그랬는데 어머니를 복 패듯 하고 그러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데다가 꽃을 꽂아 놨었어요. 그 꽃 한 송이 꽂아 둔 물을 갖다가 쓱 내밀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보더니 "어머나! 여기가 천당이구나. 여기가 승천하는 곳이구나.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아,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비비더니 그러고는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아직까지도 잘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아주 기가 막힌 때가 많아요. 아주 미친 짓을 해 놓고는 나한테 와서는 "그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래요. 번연히 사기를 당할 줄 알면서도 돈을 갖다 넣고는 인제는 집도 절도 다 망하게 생겼다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 그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한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영리하고 똑똑하게 살라." 또는 "우연히가 없다. 이건 절대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인제 재사 지내는 그 뜻도 대충 아시겠죠? 한 상만 차려 놓으면 한 상 거리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준다면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어요. 그 혼백의 조상들이 어디 아니 가는 데가 없이 갈 수 있고 어떤 자리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 그 자리에 정말이지 승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스님네가 재사를 지내는데 옹졸하게 그렇게 지내 주느니 저렇게 지내 주느니, 차려 주지 않느니 이런 소리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차려 준다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한 발짝 떼어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물 밥 찌개를 먹지 승천해 있는 사람이 왜 찌개 밥을 먹습니까? 먹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감지하고 바다를 마신 거와 같이, 또 바다를 토함과 같이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달하시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말입니다.

또 내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했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하하…, 뭐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여기 청주에서 아주 요긴할 거, 우리가 생활에서 요긴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시급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갖다가 쌓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고프면 먹어야 하듯이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고정된 게 없고 이것 저것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을 줄 알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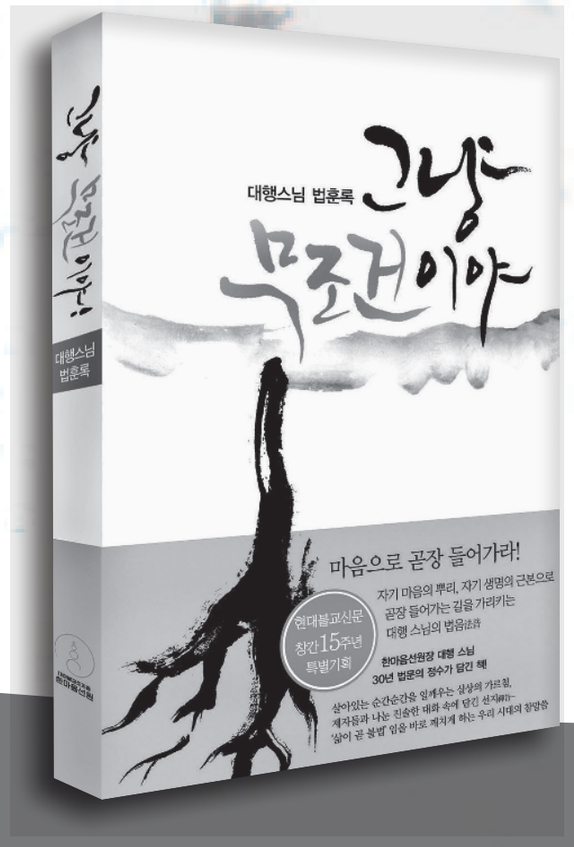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느 거 하나 고정된 게 없이 용도에 따라서 자꾸자꾸 닥치는데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야 할 그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 이런 것이 모두 첨보돼야 되겠으니까 말입니다. 첫째는 믿음이죠. 자기 주인공 뿌리를 진짜로 믿고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너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애고를 없앨 수 있다. 너만이 병고를 낫게 해서 튼튼하게 심부름을 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몸뚱이와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자기 스스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세워서 해 나가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정신세계 50%를 왕창 간파하려면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이 언제나 자문자답하면서
생각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하나하나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국내지원법회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소년아!

소년아!
네가 주인이다
네가 태양이다

맑게 자라다오
밝게 자라다오

욕망에 눈이 흐린 어른들이
너의 맑은 눈을 보는 것만으로
너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라

우리의 희망, 태양 소년아,
너는 우리의 주인공

바양울기, 바가오이고르

바가오이고르 지역으로 들어가면, 갈 때마다 신세를 지는 유목민 가족이 있다. 전체 가족 수가 십여 명이 넘는 대가족이다. 그곳에 두 번을 갔는데, 모두 겨울이었다. 평소에도 '여기가 도로다' 라고 도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찾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언덕 바로 위에 암각화들이 있다. 그날도 눈이 살짝 쌓여 있어서 장갑으로 눈을 훑어가며 암각화를 찾았는데, 꼬마가 따라와서 여기저기 눈 속에 있는 그림들을 찾아 주었다. 나는 추워서 오리털 점퍼를 입고 두툼한 장갑을 꼈는데, 꼬마는 옷도 대충 입고 장갑도 끼지 않았다. 이리저리 나를 안내하면서 암각화를 찾아 주는데, 추운 기색은 하나도 없고 따뜻하고 밝은 미소만 가득하였다. 미안해서 내 장갑을 아이의 손에 껴 주면서 작고 귀여운 손을 감싸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워낙에 외진 곳이라서 외지인이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암각화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기 살고 있는 유목민들의 힘만으로 이 암각화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 정부나 학술 단체 등에서 유목민들과 함께 암각화 보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곳의 암각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욕심 같아서는 저 어린 소년이 이곳의 암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잘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두 팔을 벌린 자세를 부탁하여 사진을 찍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욕망으로부터 이 암각화를 '네가 잘 지켜 줬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었다.

연재를 마치며…

암각화를 통해, 불교 이전의 불교를 찾아보고 싶었고, 불교 이후의 불교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너무 많이 벗어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도 정견의 혜안으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졸고를 지면에 실어주신 현대불교신문사와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내 청안하소서.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㉔ 진철 스님

남다른 원력으로 사신 고마운 선지식

사라진 스님의 편지글을 떠올리며 스님을 기억해 본다. 안타깝게도 스님의 서신을 고이 간직하지 못해 스님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진철 스님과의 첫 만남은 스님의 법문을 담은 녹음 테이프였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에 스님을 뵐 수 있었다.

시원시원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으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 녹음테이프로 스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직접 뵙고 가까이서 육성의 법문을 듣고 나니 또 한 번 분에 넘치는 인연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난다.

스님은 평소 종단이나 신도들에게도 옳지 않는 일에는 쓴 소리로 아끼지 않았던 선지식이었으며, 대한청소년연합회 이사장과 대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도 역임하신 훌륭한 포교사이기도 했다.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대중을 위한 법문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법문 녹음테이프로 첫 만남
보현봉사회 지도법사로 모셔

"마음가짐이 잘못된 생각으로 극락을 발원한다면 극락을 갈수 있을까요? 양심과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극락을 발원해야 극락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오염된 돈을 벌지 말아야 참다운 불자입니다"고 하신 법문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 그 때 그 법문이 나를 비롯해 연꽃모임 도반들이 스님을 따르게 된 계기였다고 기억된다.

1994년 연꽃모임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보현봉사회를 창립했다. 그 때 우리는 진철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셨다. 그 당시 스님께서 주셨던 편지가 어쩌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 내용만은 잊지 않고 있다.

"대원성 보살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모두가 은혜인데 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사회를 위해 봉사의 뜻을 세웠다고 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믿습니다.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고 나눈다는 것, 베푼다는 것을 내가 먹고 쓰고 남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먹는 것을 바로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보시이고, 주었다는 마음 두지 않고 베풀어야만 진정한 보시의 공덕이 됩니다. 즉 상(相)을 내기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한 진정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르신을 대할 때에도 단순히 틀에 박힌 인사말로 인사하는 것보다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우리 살아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염불공덕으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원력의 기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대원성 가족 모두가 불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모범 불자 가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주셨던 글을 어쩌다 잃어버렸는지 너무 아쉽고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평소에 소탈하신 음성과 그 말씀들만은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스님이 통도사 자비원 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는 가끔 위문을 갔었다. 그때 우리는 스님의 운영 방식에 놀랐었다. 그 당시 자비원에는 할머니 50명, 할아버지 50명 총 100명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르신 모두 복장이 너무나 깨끗했다. 스님의 생각이었다. 그저 옷 하나 깨끗하게 입는 것으로 볼 일이 아닌 것이다.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어쩌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스님을 뵈면 죄송해하고 "어서 죽어야 할 텐데"라고 할 때면 스님은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루라도 더 살아서 염불 많이 해야 합니다"고 위로 하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립다.

뵐 때마다 스님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불자를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깨어있는 불자의 삶은 바로 내 이웃과 사회로부터 나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해야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일찍 세상을 떠나신 스님을 잊지 못함은 스님이 남다른 원력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그 고단함에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이다.



1995년 보현봉사회 1주년 창립기념법회에 참석한 진철 스님(둘째줄 좌측 6번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삶의 질을 바꾼다!

죽으면 다 끝나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육체적 죽음이 죽음의 실체인가?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진탁 지음/신국판/352쪽/값 17,000원



한국 사상사의 대표적인 철학논쟁!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

유불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과정을 거쳤는가?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책은 유불 논쟁이 지니는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도웅 지음/신국판 양장/480쪽/값 25,000원



무엇이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가?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현대에 맞도록 불교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불교철학서이다. 믿음이 아니라 이치를 따져 교리의 옳고 그름을 밝혀보겠다는 말이다. 불교가, 붓다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것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책은 현대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으로 불교의 근본 개념인 연기, 공, 무상, 무아를 해석하고 논증하여 그것들이 진리임을 밝히고 있다.



홍창성 지음/국판/216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제등행렬용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연천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마하몰 ☎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